

OLP JOURNAL

Opinion Leaders Program 저널 March 2017 VOL.18



발간사

OLP 19기 회장 배성운

신년사

OLC 6대 회장 구자관

OLP가 보는 세상

70년 전후 질서 뿌리 채 흔든다

2017 노동 제도 변화

영란법... 책 선물 어때요

OLP Special

2016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2016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2016 OLC 연합 골프대회

OLC 회원들과 떠난 부여 역사해설 가을 여행

오페라를 보러갈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OLP의 백미는 졸업여행이다



하루 한 알, 고함량 비타민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엔 **바디비타민**

도비콤 골드정

TOBICOM G 골드정

- 육체피로
-
- 신경통
-
- 근육통
-
- 눈의 건조감
-
- 항산화



아시아 최대 도심형 아울렛 마리오아울렛

마리오아울렛은 국내·외 유명 패션브랜드부터 가구, 전자제품, F&B까지
600여개 브랜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이제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지중해 휴양지를 만나세요

연천 허브빌리지는 조용히 흐르는 임진강과 함께 향긋한 허브향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고품격 허브테마파크입니다



항산화 성분
리그난,

참기름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항산화성분 '리그난'이 10,000ppm 함유된
백설 리그난 참기름 탄생

백설만의 특허받은 초임계 공법으로 참깨 본연의
깔끔하고 고소한 맛과 향은 그대로 살리고, 참깨
고유의 항산화 성분 '리그난'을 등백 함유하였습니다.
건강까지 생각한 백설 리그난 참기름을 만나보세요.

건강을 생각한
리그난 참기름



OLP JOURNAL

Opinion Leadership Program

Contents



6	발간사	배성운	54	내가 목욕탕에서 당당한 까닭	정진건
8	신년사	구자관	57	홍보는 꿈보다 해몽	이상철
OLP Cover Story			58	부활과 세상 인심	고철종
12	OLC 원우 대상 대선주자 여론조사	안미현	62	절대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골프	김수영
OLP가 보는 세상			OLP Photo Essay		
16	70년 전후 질서 뿌리 채 흔든다	박상주	64	런던에서	지태현
18	2017 노동 제도 변화	이철형	OLP Travel Essay		
22	영란법... 책 선물 어때요	신혜신	67	OLP 1기 보길도 탐방	박병환
OLP Special			68	가족 휴가 여행 떠나기	유복환
26	2016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허원순	70	남도답사 일번지	오원정
30	2016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이용문	72	시모노세키 단상	김홍익
34	2016 OLC 연합골프대회	김 석	76	폴란드 소도시 여행	지태현
38	OLC 회원들과 떠난 부여 역사해설 가을 여행	호미숙	82	혁명 토굴과 유배 저택	김동원
42	오페라를 보러갈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정지철	OLP Book Review		
44	OLP의 백미는 졸업여행이다	박연직	86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문규선
OLP Essay			OLP News		
50	56만 원으로도 지키지 못한 아빠의 자존심	백재현	87	OLP 회원동정	
52	Drawing으로 나와 직면하는 생각의 노출	문규선	88	OLP 21기 입학안내 / OLP를 말한다	

‘OLP(Opinion Leaders Program)’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기업체 간부와 전문직 중간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제, 경영전문과정입니다.

〈OLP JOURNAL〉은

‘OLP’ 교육을 수료한 멤버들이 경제, 경영 현안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언론인들의 상호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작하는 저널입니다.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LC 동문 모든 분들이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 외교는 물론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 치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OLC 회원 분들께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크고 작은 변화와 어려움을 견뎌왔고 현실의 온갖 난제도 극복하면서 새로운 진전과 발전을 위해 언제나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직분에 전념해 왔습니다. 저는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의 대내외적인 난국에 대처하며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며, 가족들에게도 믿음직한 가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의 어려운 국내정세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가까운 장래에는 최첨단기술과 과학을 통해 점점 현실화, 상용화 되어가고 있는 AI(인공 지능), 빅데이터,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100세의 수명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수명연장시대에 우리 OLC 가족 모든 분들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건강관리 방법 중에서도 폐를 깨끗이 하는 청폐(淸肺)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질병이 하나하나 우리를 찾아오는데 만병의 원인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폐입니다.



클.
배성운
OLP 19기 회장
(주)현대글로벌모터스 회장

폐는 우리 몸속에서 청결공장(cleaning factory)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혈액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 폐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놓고 다시 산소만을 가지고 우리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폐로 운반되어온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고 깨끗한 산소는 호흡을 통하여 폐로 흡입됩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 먹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오염물질을 머리카락 굵기에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1/10, 초미세먼지는 1/25, 세균은 1/100, 바이러스는 1/1000에 불과합니다. 특히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폐에 맑은 공기를 계속적으로 주입하지 못하면 적혈구는 폐 속에 저장된 산소를 온몸으로 공급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신체 각 부분에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맑은 산소를 많이 흡입하지 않으면 백혈구가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활발하게 얻을 수 없게 되므로 폐렴에 걸리게 되고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도록 해 폐를 깨끗하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OLC 모든 회원들께서도 오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는 청폐(淸肺) 운동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폐를 깨끗이 하는 청폐(淸肺)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OLC 가족 모든 분들이 청폐(淸肺)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

올해도 청폐(淸肺)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가정과 사업에 늘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LP

»

»

OLC 원우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

올 한 해 뜻한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OLC 식구들과 다시 새해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 저에게는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OLC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해 주신 회장단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원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중국시장 불안 및 브렉시트 등 예상치 않게 시장불안이 고조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연초부터 전개되면서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되고 있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대하고 희망한 것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속되는 청년 실업 증가와 인구 감소의 가속화가 가져온 사회 전반의 활기 저하는 대한민국호의 더욱 과감한 구조 개혁과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경기민감 업종에 트랙별 구조조정 체계를 세우고 조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상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총체적 상환능력심사를 도입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는 등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LC 원우 여러분,

2017년 새해에도 대내외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및 글로벌 금

클.
구자관
OLP 6대 회장



리 상승과 잠재 성장력 둔화,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사람은 태산에 넘어지지 않는다. 발아래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처럼 작은 위험요인 하나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 등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여건 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2017년에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고, 경제적 활력의 열쇠가 되는 신 성장 산업의 발굴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앞서 갈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집결하고 과감한 투자를 독려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한 압축적이고 생동감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전 국민의 눈물겨운 투지로 IMF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현재의 어려움도 거뜰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 언어와 종교와 이념을 아우르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파를 초월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이야기합니다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려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에서 활약하시는 우리 OLC원우들께서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원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원우님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OLP

»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K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SeaLand

OPINION
LEADERS
PROGRAM

OLP

OLP Cover Story

OLC 원우 대상 대선주자 여론조사

안미현 OLP 10기

OLC 원우들이 지지하는 대선후보 1위는 안희정



OLC 원우들이 가장 바라는 차기 대통령은 안희정 충남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를 가장 잘 살릴 것 같은 대통령감도 안희정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가장 많이 꼽아 '희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찍지 않을 후보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가장 많이 '낙점'받았다.

이는 OLP저널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OLC 원우 190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주자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에 응한 원우들은 기업인(후보 포함)이 73명으로 가장 많고 언론인 42명, 공무원 10명 순서였다. 현직을 떠난 원우도 원래 출신을 기준으로 했다. 남자가 169명, 여자가 21명이다. 연령 분포는 50대가 121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 35명, 40대 32명, 30대 2명이다. 출신지는 다양하다. 서울이 43%(81명)로 가장 많다. 영남(21%, 40명)이 그 뒤를 이었고, 호남(23명)과 충청(24명)은 각 12%로 비슷했다. 경기도는 6%(12명), 강원은 5%(10명)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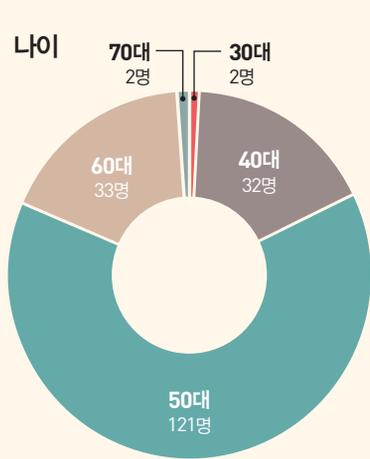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OLC 원우들의 생각은 좀 달랐다. 아니, 많이 달랐다.

이번 대선 때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겠느냐는 질문에 OLC 원우 3명 중 1명(33%, 63명)은 안희정 후보를 꼽았다. 문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안 후보 지지자의 절반도 안 되는 29명(15%)에 그쳤다. 3위는 황교안 권한대행(28명, 14%)이 차지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14명),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6명), 이재명 성남시장(2명), 홍준표 경남지사(2명) 등은 한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바른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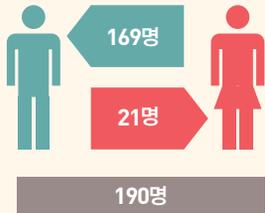


글. 안미현
OLP 10기
서울신문 부국장 겸 금융부장

OLC 원우 대상 대선주자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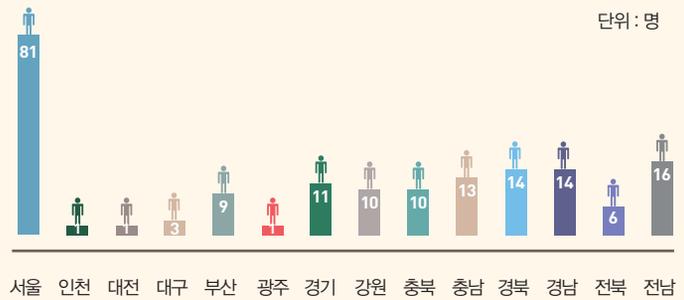
성별



직업



출신지



소속)도 각각 1표씩을 얻었다. “누구를 찍을지 아직 못정했다”(39명)는 부동층도 20%나 됐다. 어떤 응답자는 “대한민국을 개조할 지도자감이 없다”고 개탄했다.

자신의 지지와 관계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OLC 원우 2명 가운데 1명(49%, 94명)이 문재인 후보를 뽑았다. 2위 안희정 후보(29%, 56명)와 3위 황교안 권한대행(10%, 20명)과는 격차가 컸다.

OLC 원우들의 출신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인 비중이 가장 높다. 대통령이 될 확률은 문재인 후보가 높지만 경제인들이 바라는 대통령 감은 안희정 후보라는 방증이다. ‘경제를 가장 잘 살릴 것 같은 대통령’ 1위에 안희정 후보(59명, 31%)가 뽑힌 것도 이런 정서를 말해준다. 2위는 창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안철수 후보(35명, 18%)가 차지했다. 3위는 유승민 후보(30명, 15%)였다. 문재인 후보(19명)는 황교안 권한대행(22명, 4위)한테도 밀려 5위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 항목에서 가장 ‘나쁜’ 성적이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각각 2표를 얻은 점도 눈길을 끈다.

‘안티’(反)층이 가장 많은 사람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다. 자신이 미는 대선주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찍지 않을 후보’ 1위에 올랐다. 76명(40%)이 비토했다. 문재인 후보도 27%(53명)가 비호감을 드러내 열성 지지층 못지않게 안티층도 강함을 보여줬다. 시원시원한 사이다 어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이재명 후보(20%, 39명)는 3위에 올라 ‘막말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안희정 후보를 뽑은 사람은 2명(1%)에 불과했다. 선

거 이후를 걱정하는 원우들도 매우 많았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75%(144명)가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을 꼽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7%, 15명), 노조 등 기득권층의 개혁 저항(7%, 14%), 중국의 사드 보복(4%, 4명) 위험은 견줄 바가 못 되었다.

이런 안팎 불안요인 때문인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전망도 2%대(50%, 96명)가 가장 많긴 했지만 1%대도 34%(66명)나 됐다. 심지어 0%대로 비관한 원우도 14명(7%) 있었다. 3% 이상을 본 원우는 8명(4%)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뒀으면 하는 분야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었다. 응답자(3순위까지 복수응답)의 40%(76명)가 1순위로 뽑았다. 2, 3순위로 꼽은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63%(119명)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의 국론 분열을 우려해 ‘사회대통합’을 1순위로 꼽은 사람도 37명(19%)이었다. 외교안보는 20명이 1순위로 뽑았다.

1~3순위를 모두 합하면 일자리 창출-사회대통합에 이어 ‘저출산 고령화 대비’(65명)가 3위를 차지했다. 개헌(25명)과 통일 준비(18명)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렸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OLC 원우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138명, 72%)였다. 이와 비슷한 이원집정부제 지지율도 12%(24명)였다. 내각제는 7%(14명)에 그쳤다. 기타의견 중에도 대통령 임기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 지지가 많았다. 5년 중임 대통령제(2명), 6년 단임제(1명), 현행 유지(1명, 5년 단임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2명은 시기상조라며 개헌에 반대했다. **OLP**

❶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으시겠습니까?



❷ 경제를 가장 잘 할(살릴) 것 같은 대통령은?



❸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뒀으면 하는 분야는? (각 순위 별 상위 3분야만)

	일자리 창출	외교 안보	복지 향상	통일 준비	저출산, 고령화 대비	개헌	잠재성장률 제고	노동 개혁	사회 통합	교육 개혁	재벌 개혁	기타	
첫번째 우선순위	76	20	7	2	9	8	13	3	37	3	6	3	경제2, 검찰개혁1
두번째 우선순위	27	23	9	7	24	9	16	13	26	10	6	0	경제2, 검찰개혁1
세번째 우선순위	16	12	10	9	32	8	10	11	25	25	7	1	사법 개혁

❹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정부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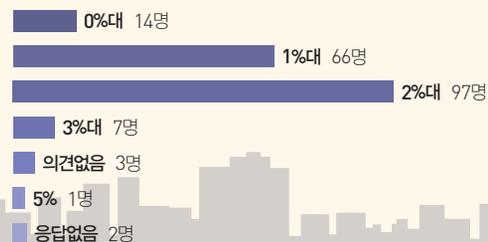
❺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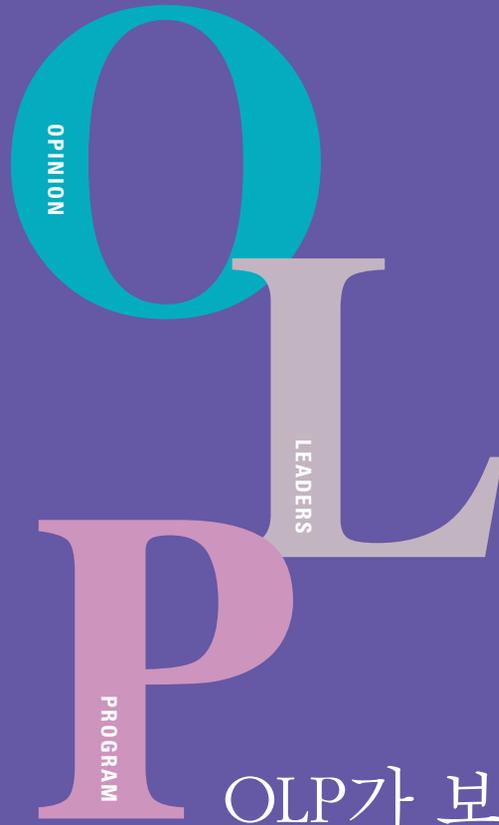


❻ 내가 믿는 대선주자가 중도 포기하더라도 절대 안 뽑을 후보는 누구입니까?



❼ 올해 우리 경제 GDP성장률을 얼마나 전망하십니까?





OLP가 보는 세상

70년 전후 질서 뿌리 채 흔든다

박상주 OLP 9기

2017 노동 제도 변화

이철행 OLP 10기

영란법... 책 선물 어때요

신혜선 OLP 18기



트럼프 미국대통령, 기득권 질서에 선전포고?

70년 전후 질서 뿌리 채 흔든다

지난 1월 20일 취임을 한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미국대통령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글로벌 질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트럼프 신임 미국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는 “기득권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세계무역기구(WTO),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탈퇴 혹은 재협상을 공언하면서 전통적인 서방의 결속을 허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워싱턴 정치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 놓아보지 않은 ‘아웃사이더’답게 미국의 정치 기득권 세력과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유럽연합(EU)과 NATO의 지도자들이 전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의 해체를 원하는 미국대통령과 씨름을 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트럼프가 전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근육질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만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미국을 인종차별을 넘어서는 ‘포스트 인종차별 시대(Postracial Era)’로 안내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이념을 뛰어넘는 ‘포스트 이데올로기 시대(Postideological Era)’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취임사는 미국의 과거와 날카롭게 단절하는 내용이라면서 공화당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WP는 과거 200여 년 미국 역사상, 취임 첫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를 통해 연속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과거와의 날카로운 단절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취임사 서두에서 자신의 전임자들에게 짧은 인사를 전한 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도의 소수 그룹이 정부의 보상을 거두어 갔다. 국민들은 그 비용을 떠안았을 뿐이다. 워싱턴은 변창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부를 나누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변명을 누렸다. 그러나 일자리는 떠났다. 공장은 문을 닫았다. 소수 기



—
클.
박상주
OLP 9기
뉴스 국제부 전문위원



득권세력의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전리품은 여러분들의 전리품이 아니었다. 그들이 수도에서 축하를 하는 동안 이 나라 곳곳에서 고통 받는 가족들이 축하를 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기득권 세력들을 앞에 앉혀 놓고 정면으로 각을 세운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전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NATO는 무용지물(obsolete)”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NATO는 테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트럼프의 말이 옳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26일 미 대선후보 1차 TV 토론에서 NATO에 대해 “28개 NATO 회원국 중 많은 수가 적절한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고 있다. NATO는 테러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비용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대선 출마 이후 내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격찬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더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전해들은 EU 지도자들은 경악했다. 트럼프가 쏟아낸 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무장관과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 독일 연방 하원외교위원장 등 유럽지도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이어 장관은 “트럼프의 발언은 경악(astonishment) 이었다”라고 말했다. 뢰트겐 위원장은 “트럼프에게는 서방의 동맹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서방의 정치·외교·군사적 질서만 혼드는 게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WTO와 NAFTA 등의 탈퇴 혹은 재협상을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을 한 파리기후변화협약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아시아 회귀’ 정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중국과 미국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중국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으로 작용을 해온 브레튼우즈 체제에 버금가는 무역과 투자, 금융 구조를 만들어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무서운 기세로 중국 중심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대고 있는 글로벌 질서는 향후 어떻게 자리를 잡아 나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일 스페인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가 무엇을 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아돌프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 독재자 출현을 경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21세기 미국에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OLP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클.
이철형
OLP 10기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OLC 회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올해 주요 법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세법관련
 사항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시 40%(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4만 6000명이 신설되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가 현행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되며,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의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2%로 하향됩니다. 신고기한 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이하는 250만 원(2018년부터), 1억20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2019년부터)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의 50%로 축소되며, 해당 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도 현행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은 매년 해당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개정 전-한도 없이 5년 내 세액공제)되며 환급금과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도 폐지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시설물 이용권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한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둘째
 부동산관련
 사항입니다

연간 2000만 원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연장되어 19년부터 적용되며,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되었다. 16년까지는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액이 5억 원 초과 시 40% 세율로 과세됩니다.

올해부터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 상환원칙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50% 이상의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으나 75%로 완화됩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여진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물에서 2층 또는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됩니다.



**셋째
개별적 노사
근로관계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보다 440원(약 7.2%)인상된 6,470원입니다. 1주에 40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월 환산 기준 209시간(주당 유급휴수당 8시간 포함) 근무한 근로자의 월 환산 급여액은 1,352,2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됩니다. 작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였으나,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됩니다.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불합격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해달라고 하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넷째
사회보험 및
고용 촉진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향되고 부담기초액도 인상됩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현행 2.7%에서 2.9%로 상향되며(공무원·공공기관은 3.0%→3.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현행 1인당 월 757,000원에서 8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7년부터 고용보험 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 고용 장려금이 통합 개편되며, 기존에 개별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 안정장려금 및 고용 창출 장려금 총 2개 장려금으로 통합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월 135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 기업(ex. 제조업 500인 이하 중소기업 등)은 급여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3개월 간(‘아빠의 달’ 기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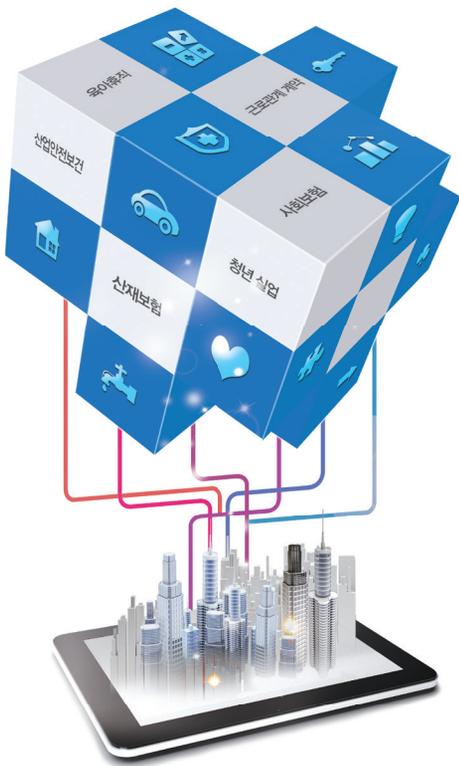
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성별 근로자 현황 제출 서식이 다소 간소화 되어 현재 7개 직종에서 2개 직종(관리자, 기타)으로만 구분해 성별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청년 실업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동 제도는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관련
사항입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작업범위가 현행 '20개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됩니다. 용접·용단 등 대형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화되며,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하는 기준이 순간풍속 초당 20미터에서 초당 15미터로 강화됩니다. 산재다발사업장 공표 대상 선정 기준이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해율'로 변경되며,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이 추가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던 산재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2017.12.31.까지 입법촉구)을 받았 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내에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여섯째
대규모기업
집단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5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규정이 이원화 됩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은 모든 (사 전)규제를 적용받으나, 자산 5조원 이상~10조 원 미만 대규모기업집단은 상호출자 등 공시의무, 총수일가 사의 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규제를 받습니다. 공정거래법 에 따르면 자산 10조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은 재무·손익현황, 계열사 현황, 임 원 현황 및 변동, 소유지분현황,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 계열 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특수인과의 자금 차입·대금, 유가증권 거래, 채무보증·담보제공,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의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5%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 소유 지배 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등도 공시해야 합니다. 국내계열사가 해외계열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각 거래내역과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도 공시해야 합니다. **OLP**



영란법... 책 선물 어때요?



2017년 새해, 출판시장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국내 2위 책 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부도를 낸 것이다. 부도 금액은 700억 원 가량. 수천 억 원이나 수조 원대의 부도를 내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며 웬 호들갑이냐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은 꽤 심각하다. 영세한 출판시장의 특성상 송인서적과 거래한 기업이 꽤 많아서다. 출판사 2000여 곳, 지역 작은 책방 1190여 개, 3000개가 넘는 소기업이 정초부터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판계 100억 원의 부도는 해운업계의 1조 원 부도와 맞먹는다.”고 우려하며 심각성을 나타냈다.

출판사별 부도 피해 금액은 수천 만 원부터 2억 ~ 3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천만 원이라 해도 1인(4인 이하) 출판사 입장에선 최소 4 ~ 6개월간 매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직원이 4명인 A 출판사의 부도 피해 금액은 1억 5000만 원. 6개월 이상의 매출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다. 대부분 출판사는 급한 대로 용자를 신청했다. 부도 초기 정부는 급한대로 1차 지원방안으로 '1사 1회 2000만 원 한도 저리 대출'을 내놨다. 하지만 시쳇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 금액 역시 부채다. 어음 등 후진적인 유통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이번 송인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직성에 회의가 든다. 우선 송인의 태도다. 부도 기업은 유구무언이다. 사업을 잘못했으니 뭐라 변명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송인 부도에 새삼 더 분노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구조에서 왜 부도까지 벌어들였느냐는 미심쩍음이다. 출판사에서 도매가로 책을 받아 서점에 납품하니, 송인의 영업이익은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보장된다. 최소 15% 내외의 안정적인 이익이 보장된 사업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왜?”라는 답 없는 질문에 원망을 담을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도나기 하루 전까지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갔다는 점이다. “부



글. 신혜선
OLP 1871
머니투데이 VIP뉴스 부장

도 전달까지 이렇다 할 내색 없이 출판사로 책을 '왕창' 주문해서 가져간 건 너무나 것 아닙니까.” B 출판사 사장의 울음 섞인 한탄에 송인은 답이 없다. “송인도 안 됐다”는 이해나 동정표를 결코 줄 수 없게 하는 사정이다. 시쳇말로 10여 년을 거래한 파트너사의 뒤통수를 친 것과 다르지 않다.

두 번째는 영세 출판사에 대한 대접이다. 이들은 어음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산다. 반면 대형 출판사나 서점은 현금거래를 하거나 송인이 받아야 할 타사의 어음을 받는 식으로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 극단적으로는 작은 출판사의 책을 팔아 큰 출판사부터 우선 지급했다는 얘기도 있다. 작은 기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물량과 힘이 큰 기업만이 안정적인 사업 조건을 확보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억울하면 돈 벌고, 회사 키우라고 하기에 함께 사는 이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자괴감에 빠질 만한 일 아닌가. 방법이 없다. 피해금액이 3천 ~ 4천인 수준의 기업은 2000만 원의 용자를 받아 급한 불을 끄면서 이 빛을 갚아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출판사는 이보다 몇 배의 큰 돈을 융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다. 출판업계에서는 책이 많이 팔려도 최소 1년은 흑한의 시절이라는 장탄식이 나온다. 2000여 개 출판사 중 1년 후 살아남을 기업은 몇 개나 될까.

부도를 맞은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출판사 사장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곳곳하게 신간을 내고 있다.

더불어 18개 영세 출판사가 모인 ‘땡땡책협동조합’을 초부터 ‘십시일반 지름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 출판사 별로 자랑할 수 있는 책 다섯 권을 꾸러미로 묶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구매를 호소하고 있다. 세트는 대략 5만 ~ 7만 원 선이다. 지난 설, 페이스북에는 정리책임자와 설 선물을 놓고 고민한 사연을 공개한 C 출판사 사장이 있다.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저자와 거래처 선물을 생략하지는 직원의 건의였다.

“설 선물 많이 하는 것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마운 저자 분들, 도와준 거래처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밥 먹고 사는데 작은 거라도 성의껏 합시다.” 이 사장이 누구를 걱정할 처지이겠는가. 다만, 의연하게 버티고 스스로 위로하지는 거다. 정부는 추가로 올해 도서관 및 산

하 기관 책 구매 비 증가 등에 50억 원 집행 등의 추가 지원 책을 내놨다. 문화의 날과 연계해 정부가 책을 사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버텨야 하는 영세 출판사로서는 책을 파는 일 외에 할 게 없다.

벌써 3월이다. 연 초에 가장 많이 하고도 실패하는 결심이 ‘책 읽기’라고 한다. 책 한 권 구매가 출판인들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올해를 진짜 책 읽는 해로 만들어 보자. 책 읽기를 즐겨 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면, ‘영란법’ 시대에 선물을 고민하는 대기업이라면, 출판사 응원을 담아 책을 선물하자.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주> 영세 출판사에 직접 주문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대형 서점이 아닌 지역 서점에 주문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OLP**

땡땡책협동조합 친구 출판사 구출大作전 십시일반 지름신 프로젝트



땡땡책협동조합(18개중소출판사)

<http://cafe.daum.net/00bookcoop/Q356/71>

유유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37>

따비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38>

여문책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39>

작은숲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0>

한살림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1>

고래이야기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2>

북인더갭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3>

프로메테우스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4>

사이행성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5>

낮은산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6>

민들레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7>

이상박스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8>

사슴치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49>

라이팅하우스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50>

펜타그램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51>

삶창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52>

한마당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53>

알림 <http://cafe.daum.net/00bookcoop/S17s/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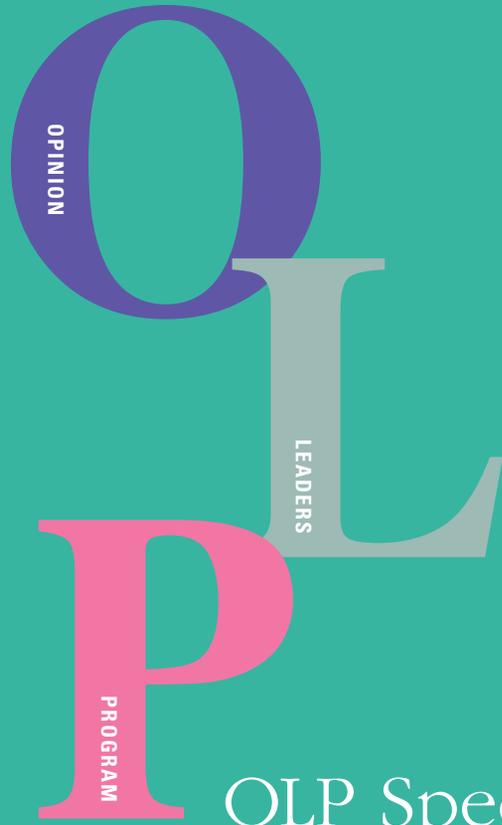
세계가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유로머니誌 선정 2005-2011, 2015-2017 총 10회 수상)
프라이빗뱅크

총 10회 수상

유로머니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크 열 번째 수상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일류은행이 되겠습니다

EUROMONEY 2017
PRIVATE BANKING SURVEY
Best Private Bank
in Korea (총 10회 수상)



OLP Special

2016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허원순 OLP 12기

2016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이용문 OLP 11기

2016 OLC 연합 골프대회
김석 OLP 12기

OLC 회원들과 떠난 부여 역사해설 가을 여행
호미숙 여행작가

오페라를 보러갈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정지철 (사)김자경오페라단 예술총감독

OLP의 백미는 졸업여행이다
박연직 OLP 20기

2016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글
허원순
OLP 12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해를 더해갈수록 성대한 규모에 고품격의 행사로 자리 잡은 서강대 OLC의 'OLC 대상 & 송년의 밤'에서 원우들이 2016년 한해를 돌아보며 변함없는 우의를 다졌다. 2016년 12월 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행사에는 구자관 회장과 홍성열, 박기홍, 김병희, 장재진 명예회장, 김홍균 경제대학원장을 비롯해 한국 사회의 각계에서 중진으로 맹활동중인 원우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륜을 쌓아갈수록 우의와 친교도 더욱 빛나는 가운데 OLC 원우들은 '아듀 2016!'에 아쉬워하며 새로운 2017년을 향한 꿈과 도전을 함께 했다. 초청 가수들의 멋진 공연에 이어 전문 가수들을 무색케 한 OLC 원우들의 친목 밴드도 장내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용광로 같은 열기 속에서 원우들은 화기에애한 정을 나누며 2017 정유년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고 도약을 서로 응원했다. 이날 OLC 2016 대상에는 이용훈 (주유니에스 대표이사(경영부문),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언론부문), 왕태욱 신한은행 부행장(홍보부문)이 선정돼 상패와 부상 메달을 받았다.





초청가수의 열창으로 2016 송년회 행사장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 01 / OLC 신규 회장단과 주임 교수진이 함께 연단에 올라 OLC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와 함께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식 전 경제대학원장, 이세정 언론분과 수석부회장(아시아경제 부회장), 김홍균 경제대학원장, 박기흥 명예회장, 이인실 교수, 구자관 회장, 김병희 명예회장, 장재진 전 회장, 정재식 교수, 어진 차기 회장.
- 02 / 모두 단합과 희망의 힘찬 박수를! 기운대는 이종재 원우
- 03 / 'OLC 대상 & 송년의 밤'은 해를 더할수록 성대한 행사로 자리 잡아가지만 기수별로 자리 잡은 테이블은 한결같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넘친다. 9기의 모습
- 04 / OLC의 응비를 상징하는 쌍 독수리 얼음 조각상 뒤로 구자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05 / 열띤 분위기 속에서도 화기애애한 정을 나누는 2016 OLC 송년회 모습. 구자관 회장, 홍성열 명예회장, 어진 차기 회장, 이한식 교수 등의 모습이 보인다.
- 06 / 단합과 화합의 용광로. 기수별, 테이블 단합 구호에 이어 OLC 전체의 단합 순서에서 이한식 전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크게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
- 07 / 2016 OLC 송년회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두형 원우와 김홍균 경제대학원장
- 08 / 감사패 수상자 이두형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영갑 법무법인 서광 대표변호사, 구영찬 유창성업(주) 대표이사 대리 수상자 송문성(주)준서예건 대표이사
- 09 / 구자관 OLC 회장(오른쪽)이 OLC 경영부문 대상 수상자인 이용훈(주)유니에스 대표이사와 나란히 섰다.
- 10 / 구자관 OLC 회장(왼쪽)이 OLC 언론부문 대상 수상자인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나란히 섰다.
- 11 / 구자관 OLC 회장(왼쪽)이 OLC 홍보부문 대상 수상자인 왕태욱 신한은행 부행장과 나란히 섰다.
- 12 / 공로패 수상자 김격수 K2 PR 대표이사, 민병오 미디어펜 편집국장, 민원표 현대 C&R 상무

경영부문 수상자

“조직이전에 사람과의 나눔과 상호작용이 경영활동의 기본”



이용훈 (주)유니에스대표

PROFILE

이용훈 (주)유니에스 대표는 1990년 회사를 설립했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국HR서비스산업사의 산증인이다. 2007년에는 세계인재서비스연맹(CIETT)의 한국대표를 지냈고 2008년 6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2016년 OLC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주)유니에스 이용훈 대표의 올해 경영화두는 바로 이 ‘득심경영(得心經營)’이다.

지난해는 불안정했던 정국이나 부진했던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다는 그는 그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은 내실과 정도를 고수해 왔고 견조한 성장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득심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통찰에 이르게 됐다”면서 “아무리 사회가 고도화, 첨단화 돼도 사람간의 마음을 챙기고 얻어내는 마음경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해가 바로 2016년 이었다”고 말했다.

OLC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부담이 함께 겹쳤다는 그는 “OLC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명예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기업경영을 더욱 탄실히 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기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말 수상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격려해준 여러 원우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OLP 3기로 비교적 초기멤버인 그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장 재임때 당시 경제대학원장이던 남성일 교수의 추천으로 OLP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당시 HR서비스산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줬고 해외에서 열린 CIETT(세계인재서비스연맹) 총회에도 동행해 주시고 업계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회고했다.

경영대상 수상자 답게 재학당시 강의도 DJ정부에서 경제부

총리를 역임했던 진념 전 부총리의 특별강연 ‘한국경제의 비전과 우리의 선택’을 가장 기억 나는 강의로 꼽았다.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정부나 정치집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의를 기억해낸 그는 ‘경제는 정치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개혁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고 소개했다.

흔탁한 정치와 흔들리는 경제로 국민들을 고민하게 하는 자금의 정치와 경제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강의를 떠올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장경영’과 ‘감성경영’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는 그는 오전에는 내부보고와 의사결정 관련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현장을 위주로 직접 돌아본다.

사업장별 고객사에도 무결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지만 현장의 직원들과의 스킨십과 소통경영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고 시간 관리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그는 권점주 전 신한생명 부회장의 ‘득심이야기’를 OLC 회원들에게 권유했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그는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분열과 대립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내세우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면서 “계층간의 화합을 우선하는 통합의 정치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책임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LP**

“2016년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가 도전받고 흔들린 한 해였다”



허원순 위원

PROFILE

OLC언론대상에 빛나는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이달의 기자상을 2회 수상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한국경제신문 국제부장과 지식사회부장을 지냈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을 지낸 그는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나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등을 저술했고 ‘DJ시대의 경제읽기’와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등을 공저하기도 했다.

“2016년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가 도전받고 흔들린 한 해였다”

2016년 언론부문 OLC 대상을 수상한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OLP13기)의 평가다.

그는 “제가 사설쓰기를 염두에 두고 바라본 2016년 우리사회는 특히 경제부문에서 발전원리인 시장경제와 자유주의가 많이 도전받고 흔들린 한 해였다”며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되찾으려는 노력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지만 길은 여전히 멀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OLC 대상 수상소감으로 “공식답변은 이제부터 잘 하라는 격려의 취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일상적으로 해운 사설쓰기나 몇몇 종류의 칼럼을 꾸준히 써 온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OLP 설립 취지와 나름대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여긴다”고 자평했다.

다만 “제가 쓴 논평과 칼럼의 수준이 그런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는 걱정이 된다”고 겸손해 했다. OLC 언론분야 대상 수상자 답게 그는 최근 언론의 행태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도 내놨다. 그는 “한국언론이 사실관계 규명에 소홀한 채 쉽게 흥분하고 심지어 선동에 앞장서기까지 한다”면서 “지금은 민주-반민주 구도의 사회가 아니다. 객관성과 진실규명, 균형감각을 찾도록 서로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OLP와의 인연에 대해서 그는 “좀 늦은 편이었다. 일선 출입처와 데스크 수행 등으로 바빴다가 논설위원으로 발령이 나서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에 입학 제안을 받아 등록, 수행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재학 당시 “저는 거의 결석을 않고 열심히 출석했다”면서 “논설실 근무라는 보직덕에 매주매주의 수업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OLC 대상을 받고 곳곳에서 과분한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는 그는 “미처 다 인사드리지 못했다”면서 “지면으로나마 재차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무엇보다 공직자에 대고 소통운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치주의 확립, 법대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무시하지는 말이 된다. 경계할 일이다”라며 “너무 많은 역할, 과도한 리더십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딱 법에 규정된 만큼만 엄격하게 수행하고 리더십의 발휘도 법대로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히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OLC 회원들에게 읽어볼 책으로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위대한 탈출’을 권한 그는 “세상은 갈수록 평평해지다가, 혹은 그 반대인가? 한국사회에서는 또 어떤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편견과 거짓된 주장, 위선의 선동이 얼마나 영터리인지 디턴 교수는 제대로 된 연구로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준다”고 말했다. **OLP**

홍보부문 수상자

“완벽하기 직전이 가장 위태로운 법이지”



왕태욱 부행장

PROFILE

2016 OLC 대상을 수상한 왕태욱 신한은행 부행장은 조흥은행에서 뱅커로서의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신한은행에서는 개포 남지점장과 홍보부장,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브랜드 전략본부장과 동부본부장 본부장을 거쳐 2014년 부행장보로 소비자브랜드그룹장을 역임했고 2016년에는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아홉, 열아홉, 스물아홉. 완전하기 바로 전이 가장 위태로운 법이지. 완벽한 숫자 10에 가까운 미완의 숫자”

최근 종영한 TV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한 대사로.

2016 OLC 홍보부문 대상을 수상한 왕태욱 신한은행 부행장(OLP13기)은 최근 종영한 대박 드라마 가운데 하나인 ‘도깨비’에 나오는 이 대사로 OLC 대상 수상의 변을 시작했다.

대상을 수상한 2016년은 그가 은행생활을 시작한 지 29년이 되는 해였다는 것. 드라마에 나온 이 대사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완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태로움이 필요하더라도 해석할 수 있다고 왕 부행장은 밝혔다.

그는 “작년은 좀 더 완벽한 올해를 준비했던 한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을 OLC 대상이 장식해줘서 올해는 조금 더 완벽해 질 것으로 기대되네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왕 부행장은 OLC 대상을 수상한 뒤 ‘부행장 연임’이 확정됐다.

왕 부행장은 “탁월한 역량으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을 이끌어 내고 오랜 기간 동안 홍보의 한 우물을 파 오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OLC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쁘기 그지없다”고 소감을 말했다.

은행생활의 절반 넘게 홍보업무를 해왔다는 그는 항상 새로 시작하는 듯이 열심히 해왔다면 그런 일상들이 모여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OLP 13기인 그의 OLP와의 인연은 언론사 데스크들로부터 시작했다. 홍보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많은 언론사 리더

들이 “아직도 OLP를 다니지 않으셨어요?”라고 질문해 온 것.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던 OLP의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는 바람에서부터 인연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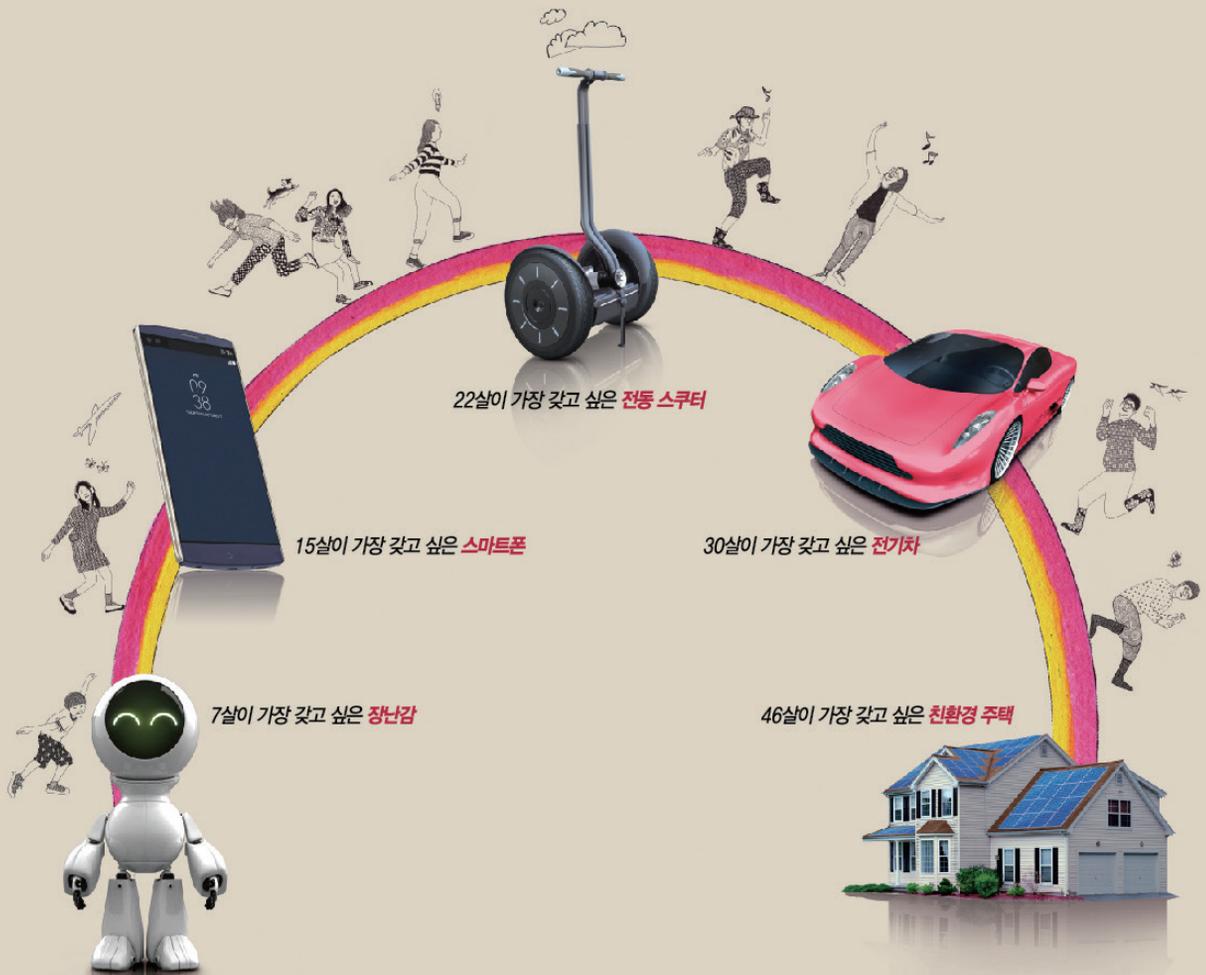
재학 당시의 추억과 관련해서는 “수료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확실히 3교시는 잊지 못할 수업이 됐다”고 회고했다.

왕 부행장이 OLP에 출석하던 시기는 컴백한 남성일 교수가 지도교수를 하던 때였고 1, 2교시의 알찬 강역에 이어 진행되는 3교시(?)를 통해 동료들과의 정을 깊게 했다는 것.

홍보업무를 하다보면 맞춰놓은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쉽지않은 않다는 그는 “시간을 관리한다기 보다는 일을 관리하는 편”이라며 “시간에 구애받을 수 없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우선 순위를 매기고 그 순서에 따라 하나씩 해결하는 편”이라고 시간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OLC 회원들에게 ‘랑야방-권력의 기록’이라는 책을 권하는 그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두면 암수를 쓰는 상대방들이 자기 피에 빠져 스스로 몰락한다”면서 “정당하지 못하고 거짓된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덮에 빠지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중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거짓없이 올바르게 정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OLP**



당신이 꿈꾸는 것, 모두 화학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제품마다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은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당신의 앞선 인생과 함께합니다

2016
연합골프대회





열정. 서강 OLC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단어다. 학교의 열정, 회장단의 열정, 회원들의 열정... 열정이 넘치는 구성원들이 서강 OLC를 한국 최고의 모임으로 만들었다. '제15회 서강 OLC 연합골프대회'가 열린 2016년 10월 28일. 나는 서강 OLC 구성원들의 넘치는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장소는 경기도 이천의 사우스스프링스CC, 첫 조 티오프 시간은 오전 7시 7분. 일찍 서둘러야 했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못하는 나는 이날도 동료 원우에게 신세를 져야했다. 나를 태워준 원우는 2015년에 이어 노경래 원우. 12기 동기들인 안경호·김수경 원우가 나와 함께 노경래 원우의 차를 함께 타고가기로 했다. 오전 4시 50분 잠실종합운동장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잠실운동장 앞에 도착했다. 김수경 원우가 곧 도착했다. 안경호 원우는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해왔다.

그런데 웬일일까. 약속시간이 지났는데도 노경래 원우가 오지 않는 것이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김수경 원우와 함께 불안한 표정으로 이런저런 걱정을 했다. 약속시간이 20분 가까이 지났을까? 노경래 원우가 도착했다. "미안하다"며 서둘러 우리를 태우고 출발한 노경래 원우는 그제서야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앞에 누가 다마스를 세워놓은 거예요. 빼달라고 하려고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그러다가 '들어서 윽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를 불렀죠. 들이



—
글.
김석
OLP 12기
경향신문 산업부장



드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겨우 빼내 몰고 왔어요.”

다마스에 대해 알아봤다. 2인승 밴의 경우 빈 차의 무게가 865kg이다. 짐을 450kg까지 실을 수 있다. 완전히 빈 차는 아니었을 테니 1톤은 되는 차를 노경래 원우가 경비 아저씨와 둘이서 옮긴 것이다. 와우~. 이런 엄청난 힘이...

구자관 회장도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전날 일기예보를 봤더니 이날 비가 온다는 것이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비가 제법 내렸다. 구자관 회장은 걱정이 돼서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비구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 안 있어서 그치겠구나.’ 하고 생각했고, 구자관 회장의 간절한 바람에 하늘도 감동한 것 같다. 예상대로 행사가 시작되기 전 비가 그쳤다.

노경래 원우를 만난 이후 골프장까지는 일사천리였다. 만남의 광장에서 안경호 원우를 태우고 한달음에 골프장까지 갔다. 사우스스프링스CC는 톨게이트부터의 거리가 전국에서 가장 가깝다는 골프장. 톨게이트부터 골프장 입구까지의 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덕에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골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골프장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다. 아주 많았다. 이런 행사에는 매년 한두 팀 정도가 마지막에 빠지는 것이 보통.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신청자가 쇄도해 당초 계획한 인원을 넘어섰다. 결국 레이크코스 마지막 팀은 5인 플레이를 하는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세요~.

드디어 티오프. 마운틴코스 첫 조 정재식 교수 등의 티오

프를 시작으로 마운틴과 레이크 두 코스에서 대회가 시작됐다. 정재식 교수는 강의까지 다른 교수에게 맡기고 이날 행사에 참석, 원우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우스스프링스CC는 좋은 골프장이다. 주인이 바뀐 뒤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했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를 매년 1~2개씩 여는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렵다는 얘기. 벙커 수만 108개나 된다고 한다. 골프장이 너무 어렵다는 회원들의 성화에 회장이 직접 코스설계자를 찾아가 “설계를 좀 쉽게 바꿔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코스설계자는 그 유명한 짐 파치오.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이런 코스에서 우리 원우들은 어떤 스코어를 기록했을까. 일단 내 스코어는 형편없었다. 해저드와 벙커를 전전하느라 타수를 제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쳤다. 그 때도 지금도 그날의 내 타수를 알지 못한다. 다들 나처럼 고전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시상식에서 들은 스코어는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핸디캡을 적용하지 않은 스코어로 뽑는 메달리스트에 선정된 18기 회장 박필준 원우의 스코어는 76타. 4오버파에 불과했다. 76타는 나라면 9홀 만에도 채울 수 있을 스코어인 것 같은데...ㅎㅎ. 3년 연속 사회를 맡은 11기 간사 강주엽 원우의 말대로 ‘사업보다 골프에 더 관심이 많은’ 원우인 것이 틀림없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핸디캡을 산정한 뒤 스코어를 계산해 뽑은 우승자는 71타를 기록한 사무총장 유병인 원우. 대회 준비하느라 고생하셔서 우승상품을 챙겨 가신 건가요? 유병인 원우는 “더블파도 많이 했는데, 운이 좋아 핸디캡이 적



용되면서 우승했다”며 쑥스러워 했다. 이어 15기 김종술 원우가 72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레이코코스 6번 홀에서 측정한 롱기스트는 20기 김선일 원우의 차지. 거리는 248야드. 나도 두 번 치면 그 정도 보낼 수 있는데... 마운틴코스 5번 홀에서 측정한 니어리스트는 홀 1.2m 붙인 9기 구자희 원우였다. 18기 신주희 원우도 불과 20cm 먼 1.4m에 붙였지만 2등상은 없었다. 다버디상은 버디 3개를 기록한 12기 박연대 원우. 내가 도전해볼 만한 상도 있었다. 이름 하여 ‘엄청난 상.’ 이날 가장 많은 타수를 기록한 원우에게 주는 상이었다. ‘다행히’ 나는 아니었다. 수상자는 20기 최현석 원우. 외모로만 보면 최현석 원우는 우승후보였다. 키도 크고 몸매도 운동선수처럼 날렵했다. 그러나 골프는 이제 막 시작한 모양. 열심히 연습하면 내년에는 우승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다.

‘유일한 상도 시상됐다. 남성들이 많은 행사에 바쁜 시간을 내 참가한 여성 원우들에게 주는 상. 차를 함께 타고 온 김수경 원우도 수상했다. 짹짹~, 웃고 박수 치며 수상자들을 축하해주는 사이 행사가 끝났다. 2017년에도 즐겁게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OLP



OLC 회원들과 떠난 부여 역사해설

가을 여행



글.
호미숙
여행작가

오색단풍을 찾아 전국 단풍 명소를 찾는 요즘, 모처럼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부여로 떠났습니다. 이번 여행은 특히 해설사도 동행해서 백제의 숨결을 의미 있게 새기고 왔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으로 홀로 여행할 때와 다른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장장 4시간 걸려 도착한 부여 부소산성. 첫 여행지로 부소산성문을 이용해 산성 길을 거닐며 울긋불긋 찬란한 단풍에 매료되고 산성 내 곳곳을 둘러보며 백제를 여행했습니다. 붉게 노랗게 물든 단풍 숲길이 먼저 반기며 단풍 터널을 거닙니다. 가을 길을 거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단풍 들듯 울긋불긋 화려합니다.

김유원 해설사님은 해설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신데요, 해박한 역사 지식에 탐방하는 동안 백제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삼층사는 백제 말의 3인의 충신인 성충, 홍수, 계백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사당입니다. 임금에게 직언을 하다 감옥에 갇혀서도 나라 걱정을 했던 성충, 성충과 함께 임금께 고하다 유배를 당한 홍수, 황산별전투로 잘 알려진 계백 등 역사 속 위인들에 대한 충정심을 깨닫습니다. 등을 밝히듯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을 투사하는 나뭇잎들. 물감으로 부여 놓은 듯한 오색 단풍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낙엽도 줍



- 충남 부여 -

여행 날짜_ 2016. 11. 6

가볼만 한 곳_ 부여 여행코스

(부소산성 - 낙화암, 고란사, 정립사지 5층 석탑, 국립부여박물관, 능산리 절터와 고분)

참가자_ OLC산악회, 서강대학교 OLC 원우, 김유원 해설사(부여백제역사 해설)

참고 영상 주소_ <http://tvcast.naver.com/v/1223391>(부여 부소산성 오색 단풍길을 감상해보세요)

고 사색에 잠기고 싶었습니다. 삼층사를 지나 단풍 길을 걸어 조금 더 오르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맞이를 할 수 있는 영일루가 있습니다. 영일루 뒤편으로 조금 더 자리를 옮기면 곡식을 저장해둔 창고 터 인 군창터를 만납니다. 군창터에서는 불탄 쌀이나 콩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저항하던 백제군이 군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1915년, 한 초등학생이 칠파리를 캐다가 발견해서 1,250년 만에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소산성의 성곽은 산정에 테피 식인 머리띠 식으로 산성을 쌓고, 그 주위에 다시 포곡 식으로 성의 내부에 낮은 분지가 있는 형식으로 둘러싸여 축조 방식은 흙과 돌을 섞어 다진 토석혼축 식이라고 합니다. 경사면에 흙을 다진 축대를 쌓아 올렸는데요. 큰 지진에도 끄떡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부소산성 수혈 건물지 자료관에는 백제 시절에 지었다는 움집 형태의 집을 전시해놨습니다. 움집은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유적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시대는 다르지만 움막은 군인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일루에서 해맞이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곳 반월루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며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부여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부소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자루. 한자가 사자루인데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제 때에는 송월루(送月樓)가 있었는데 해맞이 영일루와는 반대로 달을 보내는 곳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1919년에 당시 군수가 임천의 문루였던 개산루를 뜯어다 짓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현관 '백마장강'은 근대 서예가인 해강 김규진이 썼습니다. 백마강이 휘돌아 흐르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백화정과 아래쪽 바위와 난간이 낙화암입니다. 꽃잎처럼 백마강을 향해 몸을 던진 삼천궁녀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백화정은 그 혼과 님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바위 절벽 아래 위치한 자그마한 사찰 고란사 천년고찰. 고란정의 약수는 마실 때마다 3년씩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왕에게 물을 받칠 때마다 고란초 잎을 띄우곤 했는데 현재 고란초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고





란사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구드래 나루터까지 이동합니다. 부소산성은 정문과 후문이 있어 양쪽 어디에서든 올라도 됩니다.

유람선을 타고 백마강 물결 따라가다 보면 낙화암이 있는 부소산을 볼 수 있으며 송시열이 썼다는 붉은 낙화암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OLC 가족여행 덕분에 즐거운 가을 여행으로 부여백제 역사투어를 마칩니다.

서울에서 부여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 곧장 점심 식사를 위해 백제원으로 향합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오찬을 즐기며 잠깐의 휴식을 즐깁니다. 정림사지 5층석탑은 백제 시대의 석탑으로 부여 정림사지 터에 위치, 목탑의 구조와 비슷하지만 돌의 특성을 살려 전체적인 형태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2기만 남아있는 백제 시대의 석탑으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복한 후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되며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보다도 비례의 완벽함이 빼어난 석탑입니다.” -해설사 김유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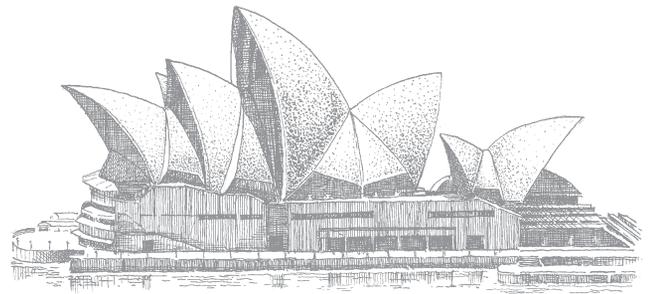
정림사지 5층 석탑이 한가운데 들어섰고 그 뒤로 금당(대웅전)자리가 있고 그 뒤편에는 미륵이 있는 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백제 건축물의 특징 중이 하나인 출입문 위에 있는 사람인자 형태인데요. 부소산성 삼층사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약 1,300여 년 전, 백제 왕실에서 귀하게 사용되었을 이 백제금동대향로는 용이 떠받치는 연꽃 모양의 몸체와 봉황을 새긴 뚜껑이 특이합니다. 용이 입에 문 연꽃 위에 솟아난 봉래산 꼭대기에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입니다. 김유원 해설사님의 말에 따르면 향을 피우면 각각의 구멍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아름답다고 합니다. 금동대향로의 부조를 보면 화려함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조각마다 다양한 동물과 자연을 표현했습니다. 뚜껑에는 피리와 비파, 북 등을 연주하는 5인의 악사와 각종 무인상, 기마수렵상, 코끼리를 타거나 책을 보는 인물 등 16인의 인물상이 있고 봉황·용 등 상상의 날짐승과 산양, 호랑이, 새, 원숭이,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을 새겼으며 폭포, 나무, 바위, 계곡물, 폭포, 호수, 불꽃무늬 등 자연을 조각해놓았습니다. 섬세하고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에 백제의 장인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대형석조를 마주합니다. 이 유물은 보물 제194호로 크기가 상당히 커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릇이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이 것은 궁에서 쓰였던 석련지(石蓮池)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양은 반침대 위에 등근 꽃망울 형태처럼 입구가 약간 오므라 들어있습니다. 백제금동대향로가 출토된 능사리 절터에 들러 해설을 듣다보니 뉘엿뉘엿 해가 지는 시간이 되어 서울로 돌아옵니다. 부여 역사해설을 들으며 부여의 숨은 멋과 전통을 되새기는 하루 여행이었습니다. 이날 가족동반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아 가을 풍경 속 특별한 부여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는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OLP

오페라를 보러갈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



문법이 틀렸거나 철자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참 어색한 말이다. 뭐, 오페라라니? 나 이런...

요즘 어느 곳에서나 문제를 삼는 행복지수니 자살률이니 하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확실히 이전보다 행복과 감성 등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많다. 감성을 부르짖는 강좌들, 행복 찾기 프로그램 등 바야흐로 정보가 모든 것이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감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계단 중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예술은 선택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된 것이다.

이 예술이라는 장르 중에서도 서구에서 시작된 ‘오페라’는 감성을 재료로, 또 목표로 하는 모든 예술들의 집약체이며 문학, 미술, 연극, 음악이 총망라된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강연 때 가끔 묻는다.

“오페라를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은 “네”라고 대답한다. 그럼 또 묻는다. “오, 그래요? 그럼 이번 달에 오페라 몇 편 보셨나요?” 다들 웃는다. 나도 웃고, 또 묻는다.

“그럼 올해에 몇 편 보셨나요?” 웃음. 재차 묻는다.

“오페라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앞쪽에 사모님께서 손을 드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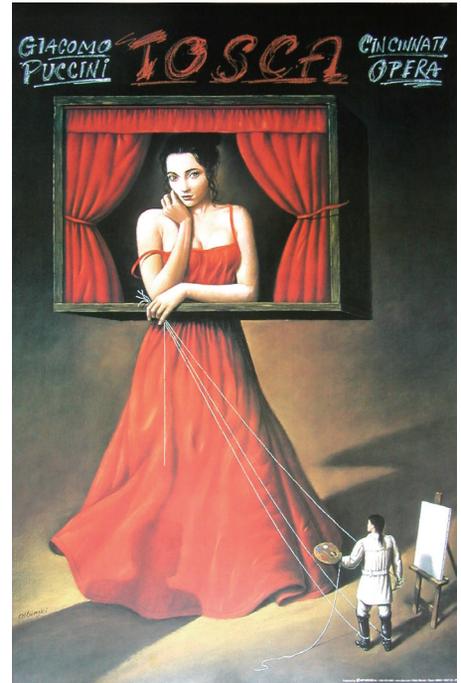
“무슨 오페라 보셨어요?”

“네, 오페라의 유령이요.”

이 대답에 실소가 안 터지면 당신도 오페라를 모르는 것이다.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가 아니고 뮤지컬이다. 뭐, 사실 상관없다. 여기까지 읽는다는 길로도 그래도 오페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고마운 한 분이니까.



—
클.
정지철
OLC 시네오페라 강사
(사)김자경오페라단 예술총감독
NEW 오페라 페스티벌 제작총감독



오페라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임은 틀림 없다. 뭐랄까, 마치 모두가 좋아하는 좋은 선배임에도 막상 내가 터놓고 소주 한 잔 마시자는 말이 안 나오는 조금 어려운 선배 같은 느낌이랄까. 별 이번이 없는 한 오페라라는 장르로 평생을 먹고 살아야하는 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이긴 한다.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물어도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오페라에 대한 거리감을 만드는 걸까?

한번 오페라를 살펴보자. 주인공이 칼에 찔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질 않고 노래를(?) 한다. 그것도 15분, 20분동안 아주 열창을 한다. '나 죽어요, 죽어요.' 이걸 노래로 말이지. 보는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차였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노래를(?) 한다. 아버지가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단념하라고 노래로(?) 한다. 이것 참..... 막상 글로 쓰니 더 난감하게 느껴진다.

다른 이유도 있다.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에서 주인공은 15살 일본의 게이샤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녀의 엄마 같은 분이, 정말 가끔은 그녀의 할머니 같은 분이 무대에 서서 '저는 15살이에요'라면서 노래한다. 이거 술이라도 먹고 봐야 물입이 될 수 있는 광경이다. 말은 또 하필이면 이탈리아 말(語)이다. 아니 영어나 하다못해 요즘 대세인 중국어라도 되면 공부한다 치고 검사점사 보겠는데 어디 가서 써 먹기도 힘든 이탈리아 말(語)이나 독일 말(語)이다. 알아듣기도 힘든 말로 노래를 하니..... 이 정도로 단점을 늘어놓으니 오페라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볼 수 있는 장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다. 그럼 도대체 이 단점을 상쇄하는 무슨 장점이 있기에 오페라가 400여년의 세월을 이기며 여전히 서구 클래식 예술의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는 걸까?

이번 여름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보러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유럽인들이 오페라를 보기위해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호주에서 그 작은 도시로 모여든 것을 보았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저 제정신으로 보기 힘든 오페라를 보기 위해 먼



곳을 달려온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 로비에서 오늘 있을 오페라를 이야기 나누는 밝은 얼굴과 그 기대감 넘치는 눈빛들만큼은 KBS 본관 후문 앞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 있는 중학생 사생팬들의 눈빛과 흡사했다는 것이다. 이진 정말이다.

이쯤 되면 당신도 궁금할 것이다. 나도 궁금했고, 오페라를 보면서 답을 찾았다. 놀랍게도 그 장점은 위에 열거한 바로 그 오페라의 단점이었다. 바로 그 뚱뚱한 어머니 같은 분이 알 수 없는 이탈리아 말로 부르는 그 노래라는 것이다.

1700년대 후반, 당대에 모차르트가 감히 쳐다 볼 수도 없는 최고 인기의 극작가 보마셰의 연극 '피가로의 결혼' 프랑스 대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까지 듣는 보마셰의 연극은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공연되지 않는다. 아니, 보마셰가 누군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대에 비엔나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지금 CF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일 만큼 유명하다. 바로 그 음악인 것이다.

불행한 인간의 역사 속에 마치 신의 위로와 같은 위대한 존재들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의 음악은 그냥 보면 그러려니 할 만한 장면들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뛰는 장면으로 바꾸는 마법을 보여준다. 그 음악은, 그 노래는, 오페라를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 중에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로 승화시켜준다.

오페라 극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모습을 소개하겠다. A와 B는 친구다. 둘은 오페라를 보러 왔다. 오페라 제목이 '사랑의 묘약'이란단다. 어느덧 오페라는 막바지로 달려간다. 무대 위에서는 불후의 명곡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이어 청년 네모리노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듣고 싶었던 아디나 아가씨의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나오는 극적인 부분이 연주된다. 탁월한 작곡가인 도니젯티는 이 부분에서 오케스트라가 엄청난 크레센도를 연주하게 하며 사람들의 심장을 타격한다. 객석에서 A가 목을 빼고 그 장면을 바라보며 듣는다. A는 주인공 네모리노의 불굴의 사랑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나고 사랑의 추억이 떠오른다. 음악은 계속 A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 음악에! 그 장면에! 결국 A는 눈물을 흘리고 만다. 이런 눈물…… 얼마 만에 흘려보는가. 정신을 추스르고 A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B를 돌아본다. 친구는 자고 있다. 맵소사…… 물론 친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자면서 더 좋은 꿈을 꾸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A일지 B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렇게 오페라는 너무 주관적인 장르. 아는 만큼 보이고 애쓴 만큼 즐거우며 마음과 귀를 연만큼 감동



을 느낄 수 있는 장르이다.

마리아 칼라스라는 위대한 소프라노에게 기자들이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당대에 칼라스와 라이벌로 불렸던 레나타 테발디의 목소리와 본인의 목소리를 비교해 달라는 것이었다. 뭐 당연히 그럭저럭한 덕담이 나오리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칼라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 나왔다.

“아, 목소리 비교요? 음 굳이 비교하자면 내 목소리는 샴페인, 그녀의 목소리는 코카콜라로 비교하면 되겠군요.”

60~70년대는 콜라가 지금처럼 유해한 음료로 느껴지지는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발언은 분명히 수위를 넘었으며 결국 음악을 사랑하는 그들의 팬들이 서로 으르렁 거리고 난투극을 벌이는 사태까지 가게 된다. 필자는 콜라도 무척 좋아하기에 그녀의 이 발언을 마냥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사실 칼라스의 뜻은 이것이었다. 콜라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음료이다. 콜라는 어린 아이들도 마시자마자 그 맛에 반해서 더 달라고 조르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맛을 소유한 음료이다. 반면 샴페인은 처음 맛 본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며 처음부터 그 맛을 느끼고 좋아하기에는 여간한 주당이 아니고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서서히 그 맛을 느끼게 되고 샴페인의 진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보는 눈과 샴페인을 보는 눈이 같을 수는 없으리라. 테발디의 목소리는 청아하고 아름다웠다. 누구라도 들으면 단번에 반할만큼 훌륭한 목소리의 소유자였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반면 칼라스는 그녀의 독특한 음색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다. 주위에 음악을 하는 이들 중에는 칼라스의 음색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목소리에 빠진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들의 입에서는 칼라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라는 찬사가 끊임없이 나온다.

난 이 샴페인으로 오페라를 이야기 하고 싶다. 오페라 이외에 대중음악 등을 코카콜라(앞에서도 밝혔듯이 난 콜라 엄청 좋아한다.)로 보고 오페라를 샴페인에 비유하면 오페라의 매력에 대해 이해가 가리라 생각이 된다. 서서히 그러나 알게 되면서부터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오페라…….

여기 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지금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 오페라가 깊숙이 들어올 기회를 잡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A가 한번 되 보시라 권하고 싶다. 그리고 A가 말하겠지.

“친구야, 우리 오페라 보러갈까? 영화 보러갈까?” OLP



OLP의 백미는 졸업여행이다



클.
박연직
OLP 20기
세계일보 사회2부 선임기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 한 원우는 틈만 나면 졸업여행을 예찬했다. 회사 선배로부터 졸업여행을 다녀와야 비로소 격의 없이 친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근거로 동기를 회유했다.

하긴 하는 일이 다른 성인들이 한 학기 수업을 같이 들었다고 해서 서먹한 분위기가 싹 사라졌다면 그게 바로 논문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교시 수업까지 들으며 정을 나눴지만 어정쩡한 분위기가 종종 연출됐다. 아무튼 1% 부족한 공허함을 채워주는 뭔가가 필요했다. 그때쯤 졸업여행이 가시화됐다.

여행지와 일정이 결정되고 참석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툭툭 터졌다. 일 년에 한번 하는 회의가 졸업여행 기간과 겹쳐 어쩔 수 없이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연말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도 일어났다. 다사다난한 일로 인해 전원참석이라는 20기의 불문율은 깨졌지만 졸업여행은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진행됐다.

2017년 1월 13일 오전, 20기 졸업여행단은 일본 미야자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졸업여행단에 동참하지 못한 원우들은 SNS 단체방에 '장도 기원' 문자를 날리며 아쉬움을 달렸다. 눈이 평평 내리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졸업여행단은 따뜻한 미야자키를 기대했다. 원우들은 "미야자키는 프로선수들의 동계훈련캠프로 이용되니까 서울보다는 엄청 따뜻할 거야"라며 한껏 기대감을 나타냈다.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비행 끝에 도착한 미야자키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바람마저 거세게 불어 몸을 웅크리게 했다.

그래도 2박3일 일정의 졸업여행은 골프조와 관광조로 나눠 시작됐다. 제설작업 때문에 비행기 이륙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2시간여 지연되면서 골프조는 점심을 거른 채 필드로 나갔다. 찬바람이 부는 미야자키의 골프장은 황량했다. 겨울날씨와 골프장 야지수는 영 어색했다. 예상치 못한 날씨 때문에 "동남아로 떠났어야 했어"라는 농담까지 나왔다. 그래도 여기

저기서 '굿샷과 함성이 터져 나왔다. 관광조는 첫날 스타벅스와 편의점을 순례(?)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날 골프조와 동반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위해 첫날 일정을 느슨하게 짰기 때문이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일정 내내 원우들의 얼굴에서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OLP 20기는 교수님들이 인정하는 모범학생답게 졸업여행에서도 3교시수업을 빠트리지 않았다. 저녁 술자리는 미야자키의 낯선 골프장을 들었다 놔다 했다. 양주와 소주, 와인 등 끊이지 않고 나온 다양한 술은 원우들과의 우정을 쌓는 윤희유 역할을 했다. 식당 영업시간 때문에 아쉽게 2교시 수업을 마친 원우들은 호텔방으로 옮겨 3교시 수업을 이어갔다. 이틀 연이어 가진 3교시수업으로 인해 내상은 깊었지만 서먹함은 금새 날려버릴 수 있었다.

여행에 동반한 사무총장 사모님께서서는 초콜릿, 컵라면, 소주 등 간식거리를 일일이 담아 와 원우들을 감동케 했다. 호텔방 마다 한 봉지씩 전달된 이 간식은 3교시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됐다. 교수님께서 원우들에게 선물한 과자는 맛이 짹짹해 각 가정에서 술안주로 요긴하게 사용됐다는 후문이다.

20기는 졸업여행을 다녀온 후 졸업식을 가졌지만 매달 모임을 이어간다.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 오찬을 함께 한다. 이 모임은 원우들이 돌아가면서 밥값을 내는 유사모임 형태로 운영된다. 또 매월 셋째 주 골프모임을 통해 원우애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당연히 번개모임도 갖는다. 그리고 원우애를 과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을 꿈꾼다. 이번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20기 포에버! OLP



맛결도시락으로 팔도요리를 맛보다

전국 팔도의 대표적인 음식을 정통 레시피로 제대로 만듭니다. 아침마다
배달되는 바른 식재료들로 전문 셰프가 직접 건강을 요리합니다.



양평부추고추장불고기 6,800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부추 고추장 불고기 요리



황덕궁떡조림 7,000
세계를 풍미한 맛결대표요리연구가의 내공이 들어간 궁중 간장떡조림 요리



무안낙지볶음 7,500
입안에서 군침을 돌게하고, 기력을 나게하는 매콤한 달콤한 낙지볶음 요리



대천칠리새우 7,500
키토산, 칼슘, 타우린 등이 많이 함유한 새우 일품요리



울산오삼불고기 7,800
타우린 함량이 높아 해독 작용이 풍부한 오징어 불고기 요리



성도마파두부 8,000
'맛결대표요리연구가의 된장을 베이스로 한 환상적인 마파두부 요리



안동닭간장조림 8,000
'맛결대표요리연구가의 간장소스로 맛을 낸 단백질 만점인 닭조림 요리



속초황태강정 8,500
특제 소스에 숨어있는 달콤한 맛에 계속 손이가는 건강한 황태강정 요리



경북궁소불고기 8,500
프리미엄 건강도시락 '맛결'이 세계를 향해 내 놓는 궁중 소불고기 요리



양양생선이더덕고추장삼겹살 8,500
새송이와 더덕의 맛을 매운 맛으로 조화시킨 달콤 씹살한 고추장 삼겹살 요리



남해삼치구이 8,500
DHA와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삼치구이 요리



황성소고기두부스테이크 9,000
와인소스와 스테이크 소스를 곁들인 두부 스테이크 요리



진부령황태소고기구이 10,000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황태 일품요리



울릉도통오징어구이 10,000
특제 황금레시피 양념장으로 맛있는 구어낸 통오징어 일품요리



부산 twin 장수육 10,000
된장과 통후추로 삶아낸, 잡냄새가 전혀없는 수육보쌈 요리



담양떡갈비구이 12,000
새송이 구이의 향과 수제 떡갈비 구이가 어울린 일품요리



DOSIRAK & CHAN 饅 Café

단체 | 배달 | 주문 & 가맹 문의
1577-5260
www.matgyul.co.kr
http://matgyul.modoo.at
blog.naver.com/matgyul

[1호점] 성수본점 02-6233-8882
[2호점] 동판교점 031-789-3830
[3호점] 구로디지털점 02-853-7800
가맹본부 같이잡시다~
| 주 WITH F&B
OLC 8기 회장 대표이사 윤 석 구

OPINION
LEADERS
PROGRAM

OLP Essay

56만 원으로도 지키지 못한 아빠의 자존심
백재현 OLP 15기

Drawing으로 나와 직면하는 생각의노출
문규선 OLP 13기

내가 목욕탕에서 당당한 까닭
정진건 OLP 10기

홍보는 꿈보다 해몽
이상철 OLP 1기

부활과 세상 인심
고철중 OLP 7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골프
김수영 OLP 18기

PHOTO ESSAY

런던에서
지태현 OLP 9기

56만 원으로도 지키지 못한 아빠의 자존심



“아빠, 여기는 안되겠어요, 우리 나가요”

“아냐, 아냐, 아빠가 사줄 수 있어, 여기서 골라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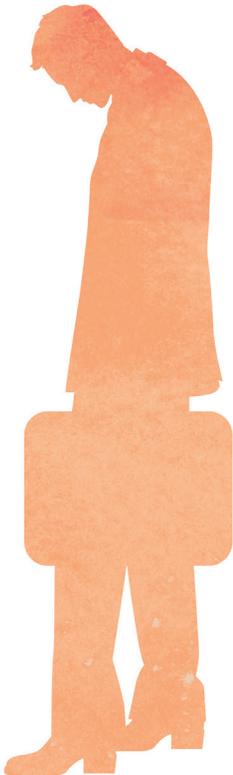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대와 뿌듯함으로 들떴던 부녀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냉엄한 현실 앞에서, 대학 졸업생 환송회 때 입을 딸의 옷을 사기 위해 시내 유명 백화점을 들른 지 불과 30분가량이 지날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못 올 곳 에라도 온 사람들처럼 주눅이 들어 빨리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아빠는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지만 평소 아빠를 잘 아는 딸아이는 숫제 내 손을 잡아끌기 시작했다. 평온하게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힐끔힐끔 보면서





글.
백재현
OLP 15기
아시아경제 뉴미디어본부 본부장 겸
전략기획실장



두 사람은 그렇게 백화점을 빠져 나왔다. 무참히 구겨진 아빠의 자존심을 뒤로 한 채.

정장 한 벌에 대략 70만~80만 원 했다. 그것도 유명 브랜드(?)도 아니었다. 곁에 입을 외투도 사야할 터. 외투 값은 더 비쌌다. 결국 줄잡아 200만 원 내외가 될 듯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것은 나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딸아, 너는 왜 재력 있는 할아버지라도 두지 못했니.’

무력감에 짓눌린 아빠는 속으로 그렇게 엉뚱한 생각까지 했다.

100세를 코앞에 둔 시골 할아버지는 지금도 장터에서 2만 ~ 3만 원짜리 외투를 사 입으시니 100만 원이란 돈의 단위는 멀어도 너무 멀었다. 손녀 대학 졸업 선물로 옷을 사주신다면 통 크게 잡아도 10만 정도 주실 것이다.

‘미리 백화점 옷 가격이라도 알아 둘걸’

50만 원 정도면 해결될 줄 알았다가 내심 충격을 먹은 나는 이렇게 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아빠, 우리 아웃렛 매장으로 가요”

한 동안 말 없이 걷기만 하다 딸아이가 불쑥 말했다. 마치 어려운 문제의 정답을 찾았다는 듯 녀석의 목소리는 밝기까지 했다. 순간 가슴이 싸해왔다. 하지만 어찌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웃렛 매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 매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근해 보일 수가 없었다. 묘한 동류의식이라고나 할까.

이심전심(以心傳心). 아니 부심여심(父心女心).

“아빠, 벌써 마음이 편안해 지지?”

‘50%~60%’ 세일 문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매장들을 보면서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안쓰러움에 씩스러움까지 겹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나 역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여러 매장을 돌아보고 여러 벌의 옷을 입어본 뒤 원피스와 외투를 세트로 골랐다. 딸아이는 그마저 가장 싼 옷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우겼다’. 결국 그 옷으로 결제를 하고 나왔다. ‘56만 원’

“아빠, 고마워요. 함께 옷을 사러 와줘서 행복해요”

녀석은 아빠의 마음속을 꿰뚫고 있는 듯 했다. 등을 토닥여주는 것으로 나는 대답을 대신했다.

그렇게 우리는 웃으면서 돌아왔지만 아빠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나마 그 정도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게 어디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돼가지고 대학 졸업하는 딸아이에 게...’라고 생각하면 심란했다.

그렇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가? 어설픈 이상한 쇼핑을 통해 부녀 간에는 쌓은 믿음과 사랑은 돈으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 **OLP**

Drawing

드로잉으로 나와 직면하는 생각의 노출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소통 수단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자주 부딪친다. 장자는 “큰 말은 아름다우면서 힘차며, 작은 말은 수다스럽다.”고 말한다.

아름다우며 힘찬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여유롭고 널널한 반면, 수다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촌촌하고 꼼꼼하다 말한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수단으로부터 개념화의 수단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을 보면 수다스러운 나무에서 단순하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드로잉은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미지에 감정을 실어 소통하고 개념화하여 생각을 노출하는 것이다.

몬드리안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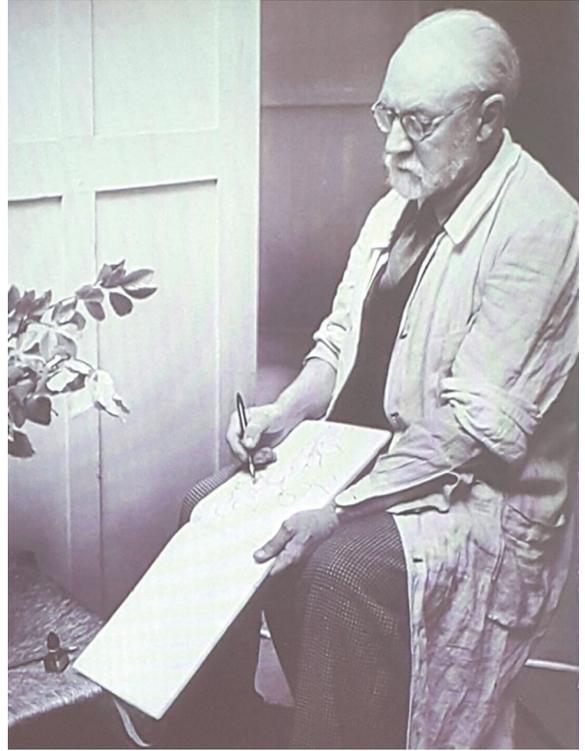


핵심만 남는 단순화

사실화에서 선과 면, 그리고 색만 사용하여 추상화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 시리즈. 그곳에서 관찰과 생각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의 평생의 관찰

눈부신 빛을 창조한 화가 마티스(Henri Matisse)는 말년에도 모든 사물을 세심히 관찰했다고 한다. 그의 미술 강의에서 “선은 내 감정을 가장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옮긴 것이다. 나의 드로잉은 빛을 낳는다. 내 드로잉은 (무엇보다도)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의 상태를 기술하는 수단 이었다.”라고 말한다. 창조적인 작품은 無에서 나오지 않는다. 근거가 되는 영감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작은 사물부터 신화, 소설, 시, 역사를 읽는 과정에서 세심한 관찰과 침잠하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창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힌트를 얻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OLP



앙리 마티스의 드로잉하는 모습



클.
문규선
OLP 13기
코스텔(주) 부사장

La Gerbe(다발)
Henri Matisse
1953





운길산 예봉산 종주산행에 나선 OLP10기 원우들

내가 목욕탕에서 당당한 까닭

“아! 형님 몸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지난 봄의 일이다. 오랜만에 골프 라운딩을 끝내고 사우나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친한 후배가 큰 소리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당연히 사우나에 있던 몇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조금 쑥스럽기는 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내 자신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몸매다. 잘록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허리의 곡선이 살아 있다. 한때 남산 만하던 때도 있었던 배는 지금 수직으로 곧추섰다. 살이 빠졌지만 옆구리가 늘어지지도 않았다. 가슴근육이나 상완이두근이 울퉁불퉁 불거지는 대신 미끈하게 빠진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 허벅지에서 장딴지로 이어지는 곡선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게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느 근육이나 적당히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나는 사우나 가는 게 즐겁다. C형과 D형으로 불균형을 이루던 체형을 팔과 수건을 동원해 가리지 않아도 돼서다. 일부러 자랑하지는 않지만 냉탕온탕을 오갈 때 다가오는 시선들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별거벗고도 당당해질 수 있음을 실로 오랜만에 다시 느끼고 있는 셈이다.



글. 정진건
OLP 10기
네이버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2011년 겨울 점봉산에 오른 고강기수 원우와 필자

지난 2년 여에 걸쳐 아내는 맞지 않는 내 옷을 고치느라 무던히도 애를 써야 했다. 한 달이 멀다하고 줄어드는 허리 때문에 양복이며 등산복은 물론이고 내복까지 모조리 수선해야 했다. 세탁소에 가서 줄여왔다고 했는데 어느새 헐렁하더니 이내 흘러내리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두 번은 고쳐서 입기도 했지만 워낙 치수 차이가 크게 바뀌다보니 몇 년 전 입던 옷들 대부분은 재활용품 수거함으로 들어가야 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아빠바지 코너에서도 큰 사이즈로 고르고 골라서 단을 줄여야만 겨우 몸에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충 골라잡은 옷을 걸쳐도 맵시가 살아나고 있다. 가끔은 나이에 비해 젊은 층들이 즐겨 입는 옷에 도전해 보는데 크게 모나지 않는다.

2년 전 나는 새로운 직업을 하나 더 갖게 됐다. 정년이다 되도록 매달린 기자란 직업을 완전히 떨쳐버리진 못한 채 미친 듯이 산을 올랐다.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는 데 그보다 많은 사흘 정도를 산으로 갔으니 등반가가 또 다른 직업이 된 셈이다.

한국 산악인의 성지라는 북한산 인수봉이나 도봉산 선인봉은 이미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올랐다. 설악산 장군봉이나 적벽 미륵장군봉 등 암봉들도 이젠 눈을 감으면 어른거릴 정도가 됐다.

인수봉을 처음 올랐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 까마득한 적벽을 빠득빠득 기어오른 뒤 오버행(90°가 넘는 각도의 벽)을 넘어 허공으로 하강할 때의 짜릿함은 지금도 삼삼하다. 미륵장군봉에서 바라본 풍유도원도(설악산 장수대 인근 신선벽

능선)의 선경이나 칼날 능선으로 구성된 '한 편의 시를 위한 길'을 타고 넘어 마주친 설악산 토왕성 폭포의 웅장함은 한국 산악에 대한 그 전의 나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런 비경을 간직한 봉우리들을 오를 체력과 기량을 기르기 위해 원주 부근 간현암이나 남한산성 범굴암, 용인의 조비산 등의 바위를 타러 시간이 날 때마다 달려갔다. 그것도 모자라 퇴근 후 실내 클라이밍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밤늦게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나는 한국 산악인들 가운데 아직은 초보이지만 '고학력자' 범주에 들어간다. 코오롱등산학교 정규반과 암벽반을 나왔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해 서울등산학교 암벽반도 졸업했다. 게다가 코오롱등산학교 이기범 강사가 운영하는 이기범 알파인스쿨의 실전암벽반을 2년이나 다녔다. 이기범 강사는 남미 최고 난이도의 세로토레 암봉을 한국 산악인으로선 처음으로 오른 암벽등반 대가이다.

그런 고수들로부터 등반을 배우고 있지만 오십 중반에 시작하다보니 마음은 날아가는데 몸은 저 뒤에서 어기적대기 일쑤다. 당연히 젊은이들에 비해 진척이 무척이나 느리다. 그게 등산학교를 재수(?)하고 또 후속교육까지 끊임없이 받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손가락에 힘이 붙고 어깨 근육도 강해졌다. 턱걸이 한 번도 힘들어하던 내가 이제는 철봉으로 그네를 타는가하면 물구나무서기까지 즐기는 단계가 됐다. 본격적으로 등반을 한 지 1년이 넘도록 남들이 줄을 걸어야 겨우 뒤를 따라 올랐으나



이젠 약한 난이도의 벽에선 초보자들을 위해 줄을 걸어줄 정도가 됐다.

내가 이렇게 등반에 빠져든 것은 그것이 소일거리로 하는 놀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단순한 놀이는 성이 차지 않게 성격이 바뀌어 서인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대부분의 등반 일정은 회사 출퇴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오전 8시 정도에 산을 오르기 시작해 5시쯤 등반을 마치고 정리한 뒤 하산해 6시는 돼야 차를 탄다. 아주 간단히 식사를 하고 돌아와도 집에 오면 8시가 넘는다. 등산학교에선 그보다 더 빠른 6~7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해 밤늦게까지 수업을 하는 빠듯한 일정을 마쳐야 한다.

산에선 배낭을 메고 걷는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 바위에 붙어 하루를 보낸다. 오고 가고 한 시간씩을 빼더라도 6~7시간을 바위와 씨름하는 셈이다. 당연히 온몸의 신경을 최고조로 가동한다.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근육을 긴장시킨 채 움직이는데 수시로 근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그 시간만큼은 집이고 회사고 아무 생각이 없다. 배고픔도 모를 정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머리는 한없이 맑고 개운해진다. 등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은 늘어질 듯 피곤하지만 정신은 아침 산책을 나온 듯 산뜻하다.

머리만 맑아지는 게 아니다. 몸뚱이 여기저기 굳어터기로 붙어 있던 군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불룩 솟았던 배가 꺼지면서 뱃가죽이 늘어지는가 싶지만 이내 탄력을 회복하고 올라붙는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며 압축하는 운동과 달리 그 정도 무게를 매달고 오르다보면 대흉근이며 상완근은 길게 펴지며 탄력을 얻게 된다. 벽의 경사가 가파라 질수록 발끝과 허리 근육을 최대한 가동해 하중을 분산시켜야 손이 버텨낼 수 있다. 자연스레 허리나 다리에 탄력이 붙고 곡선도 매끄럽게 바뀐다. 등반을 하면서 얻은 부수입이다.

그런 매력에 빠져들면서 어느새 등반은 내 삶의 일부가 됐다. 이제 출근하는 만큼 산으로 간다. 악천후로 산을 오르지 못하는 날 산은 내 머릿속에 그림처럼 다가온다. 그렇게 산이 내 정신과 육체를 강하게 만들었다.

며칠 전 당일치기로 한라산 종주산행을 했을 때 그 효과를 확인했다. 새벽 비행기로 제주로 날아가 현지에서 정착한 친구와 함께 성판악에서 백록담을 오른 뒤 관음사로 내려오는 20km 가량 되는 코스를 걸었다.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까지 나눈 뒤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었다. 전날 원고 마감하느라 세 시간 밖에 자지 못한 채 강행군을 했지만 몸은 가벼웠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이 좋은 등반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등반으로 얻은 체력은 자신감을 주었고, 부수적으로 얻은 체형은 당당함을 선사했다. 좀 더 일찍 이 자신감과 당당함을 얻었더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신 다른 목표로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한다. 내 나이 팔십 되는 날, 인수봉 정상에 오른 뒤 그날 함께 한 모든 친구들과 좋은 술 한 잔씩 나누기를 바란다.

(이 글을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OLP10기 강기수 원우의 영전에 바칩니다. 늘 밝은 얼굴로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하던 그와 함께 한 산행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습니다.) OLP  Hanwha

홍보는 꿈보다 해몽

어느 조직을 가리지 않고 홍보맨들은 늘 홍보 소재에 목마르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여있는 대학홍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위 ‘홍보거리’들 중에는 명백하게 그 성과가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별 거 아닌듯한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랑거리 또는 홍보 소재가 되기에 충분한 일들도 있다.

청주대학교는 2016년 전 세계 디자인대학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인증기관인 독일의 if서 집계한 랭킹인데, 이런 경우 세계순위 12위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청주대가 글로벌 디자인 명문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여기 비해서, 통계자료 해석을 잘해서 좋은 홍보소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청주대학교는 최근에 학교 홍보의 주요 지표로 재학생1인당 장학금 전국 4위 (2016 대학정보공시, 재학생 5천명 이상 대학), 취업률 충청권 1위 (2015 대학정보공시, 졸업생 3천명 이상 대학), 충청권 사립대 연구경쟁력 1위 (2016 네이처 인텍스 교육 기관 순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업률 충청권 1위, 비수도권 6위>라는 지표는 프레임 설정을 통해서도 출해낸 것이다. 2015년에 대학알리미를 통해서 공시된 취업통계에서 청주대학교의 취업률 수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졸업생 3천명 이상’의 가그룹 대학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충청권 대학들 중에 청주대 취업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청주대는 취업률 충청권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2016 네이처 인텍스’를 들 수 있다.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가 국제 유력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경쟁력 점수/순위인 네이처 인텍스는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평가된다.

세계 500위 내 자리한 국내 대학은 16개인데, 서울대가 57위, 경북대가 494위로 500위 안에 턱걸이했다. 청주대는 국내대학 가운데 50위에 기록됐다.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데이터이다. 그런데 지역별로 국공립,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니 홍보 포인트가 생긴다.

결론을 말하자면 2016년 네이처 인텍스에 따른 청주대학교의 연구경쟁력은 충청 지역 사립대 1위다. 충청지역에 청주대보다 점수가 높은 대학이 4개 있지만 전부 국립 대학이다. 사립대학 중에서는 청주대가 1등이다. 자랑할 만 한 포인트가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에서 유리한 내용을 어떻게 뽑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홍보담당자로서는, 팩트에 근거하여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홍보 포인트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홍보감각과 논리적인 분석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OLP**



—
클.
이상철
OLP 1기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장

부활과 세상 인심

오래 기자생활을 하다보면 기사로 쓰지는 못했지만, 평생 기억에 남는 취재가 몇 있기 마련이다. 세월이 흘러 자세한 맥락에 대한 기억은 많이 흐려졌지만, 인생의 작은 지혜를 깨닫게 해주면서 뇌리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다. 다음의 이야기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각색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예전 회사에서 SBS로 회사를 옮긴 지 6개월 남짓. 굴러온 돌이 새 터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마른자리 진자리 가리지 않고 열심히 몸을 움직일 때였다. 편집회의를 마치고 온 부장이 나를 찾았다. 뭘 일을 시키려는지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고철중씨, 저기 미안한데, 국장 지시니까 이 걸 좀 알아봐야겠다.”



글
고철중
OLP 7기
SBS 뉴스제작부 국장



부장이 부하 기자에게 취재지시를 하는데 미안할 게 뭐가 있겠는가. 평소답지 않은 부장의 태도의 의아해 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나중에 듣고 보니 당당하게 해야 할 취재 지시에 어쩔 줄 몰라 했던 부장의 표정이 이해가 됐다.

국장이 오랜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던 모양이었다. 거기서 모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 간부로 있는 친구를 만났단다. 기관의 간부는 친구인 방송사 보도국장을 간만에 보자, 그동안 속에 담고 있다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 없었던 곱삭은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을 하던 김 사장이란 동창생의 이야기였다.

김 사장은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그 충격으로 뇌졸중에다 다른 병까지 겹쳤다고 했다. 사업가 주변이 항상 그렇듯, 가세가 기울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친구와 친지들은 김 사장 주변을 멀리했다. 1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했던 그는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가족들은 장례를 조용히 치르기로 했다. 아주 가까운 친척들에게만 알렸을 뿐, 김 사장의 사망소식을 외부에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발인 전날 일이 터졌다. 새벽 시간 노련한 장의사가 염을 하고 있었다. 오랜 병수발에 지친 가족들은 잠시 참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숨으로 시신의 왼쪽 뺨을 닦던 장의사는 더러워진 숨을 휴지통에 버리곤 돌아서서 새 솜을 뜯었다. 그리고 철제 탁자 위에 둔 알코올 병을 기울여 새 솜에다 알코올 묻혔다. 다시 돌아서 다시 오른쪽 뺨을 닦으려던 그는 순간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분명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던 김 사장의 얼굴이 왼쪽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곧 요 며칠 새 일이 많아 잠을 설쳤더니 그런 가 했다. 마음을 가다듬곤 다시 숨으로 오른쪽 뺨을 포함해 얼굴을 정성껏 닦았다. 그 때 이동용 철제 탁자 두 번째 칸에 있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동으로 해냈지만, 철관 위에서 부르르 떠는 진동음은 간단치 않았다. 액정 표시를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였다. 성가셔서 꺼놔야 했다.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시신으로 눈길을 옮긴 장의

사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다. 머리가 반듯하게 정중앙을 향해 있는 것이었다. 아까는 피곤함 때문에 착각했던가 했지만 이번엔 그게 아니었다. 장의사는 김 사장의 시신에 바짝 다가갔다. 그리곤 30cm 정도의 거리에서 마주한 채 얼굴을 응시했다. 하지만 사망진단이 내린 후 이틀째 냉장 보관되던 시신이 괴기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이상 움직일 리 없었다. 장의사는 피식 웃으며 시신에서 얼굴을 멀리 뺐다. 그 순간.

그는 영안실이 떠나가도록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잠시 뒤 장의사는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병원 원장의 놀란 토끼 눈을 보며 정신을 차렸다. 영안실은 이수라장이었다. 김 사장의 가족들과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장의사는 조금 전의 기억을 되살렸다. 시신이 살아난 것이다. 그가 김 사장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일을 멈추고 눈길을 떼려던 순간, 김사장이 눈을 번쩍 떴고 자신은 혼절한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 사망판정을 내린 사람이 살아났으니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외부에 사실이 알려질 경우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병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게 뻔했다. 병원 측은 김 사장 가족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김 사장이 죽은 걸로 해 줄 경우 1년 이상 밀렸던 입원비와 장례비용 등을 모두 무상 처리해주겠다는 거였다.

김 사장과 가족은 잠시 고민했지만,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무엇보다 수입억대의 빚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다. 상황은 빨리 수습됐다. 서로 각서를 교환한 병원과 김 사장 측은 장례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전해들은 이런 이야기는 당시 유행하던 미스터리 극장에 딱 어울릴 법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화하라는 주문에 대해 나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이게 명색이 경제부 기자가 해야 될 취재란 말인가. 아무리 새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을 때였지만 이 건 아니다 싶어 '내가 이런 내용을 취재해야 하느냐고 볼 멘 소리로 물었다. 부장은 말했다.

“당신이 그 부처를 맡고 있잖아. 이야기 전해 준 사람이 그 쪽 간부니까 당신에게 알아보란 거야. 국장 지시니까, 좀 황당하더라도 취재해 봐!”

따지고 보면 경제부 기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지만, 내 출입처 취재원이 그 이야기를 전해 준 장본인에게 내게 취재를 맡긴다는 설명에, 어이없는 심정이었지만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난감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취재지시를 하는 부장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투덜거리면서 사무실을 나왔다. 가까운 그룹 기자실에 가방을 내팽개치고 출입처명단을 뒤적여 문제의 간부를 찾았다. 그는 최근에 새로 부임한 터여서 면식이 없었다. 통화 내내 짜증스럽고 귀찮은 심정이 최대한 전달 되겠끔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그가 문제의 이야기를 우리 국장에게 전하지만 않았어도 자존심 상하는 취재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다. 그는 매우 당황해 했다. 자신이 했던 이야기가 하룻밤 새 이렇게 자신에게 취재로 돌아올 거라곤 꿈도 꾸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에게 김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러려면 왜 우리 보도국장에게 쓸 데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까?”라며 따졌다. 나의 끈질긴 취재에 해당 간부는 자신이 알려줬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며 전화번호를 불러줬다. 어쨌든 내 입장에서선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국장 지시를 어느 정도 이행했다는 변명거리는 찾은 셈이었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문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약간은 떨렸다.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과 통화하는 게 아닌가. 기분이 묘했다. 그런데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분에서 30분 단위로 네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신호음만 갈 뿐이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났다. 차라리 잘 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사실일 리도 없는 황당한 내용인데다, 내키지 않는 취재가 아닌가. 아무리 해도 연락되지 않더라 이야기만 부장에게 전해주면 끝이란 판단도 들었다.

오후 3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저쪽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의 남자 음성이 들렸다. 무심코 느끼기에도 조심스럽기 그지없는 목소리였다. 순간적으로 내가 기자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저쪽에서 전화를 바로 끊어버릴 거란 직감이 스쳐지나갔다. 이야기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저…… D 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그런데요?”

저 쪽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최대한 안심을 시켜야 했다. 동시에 그래도 전화를 끊을지 모르니, 내가 그를 잘 알고 있으며 그가 거부하더라도 가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재할 수 있다며 압박해야 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둘러대며 그를 옹아맷다. 어느 순간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해냈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그는 장례식 이후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장례를 치른 뒤 병원에서 몰래 나온 그는 충청도 어느 산골로 들어갔다. 거기서 폐가를 개조해 살 집을 마련하고 유기농 채소 등을 키우며 살았다. 죽은 걸로 돼 있는 몸이라 혹시 아프면 병원 갈 일이 큰일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엔 그동안 안고 있던 지병까지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불편하던 팔과 다리도 감쪽같이 나았고, 한 겨울 산골생활에도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자신의 염을 맡았던 장의사가 그 당시 너무 놀랐던 탓인지 자신처럼 중풍에 걸렸는데, 마치 자기 병이 그에게 옮겨간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동안 대화 상대가 없었던 때문인지 그는 말문을 열자 폭포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히는 데도 열심이었다.

“고 기자님 입장에선 이게 재미있는 뉴스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나가면 나와 우리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질 경우 수많은

은 빗쟁이들이 다시 가족들을 괴롭힐 것이며, 장례식 때 병원 측과 맺은 약속도 깨지게 돼 그로 인한 금전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거였다. 뿐만 아니라 믿기지 않는 소재의 주인공이라며 자신을 동물원 원숭이처럼 생각하고 바라볼 세상 사람들의 시선 역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결국 그의 설득에 손을 들고 말았다.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했다. 실제로 그가 거부할 경우, 신문이 아닌 방송기자 입장에서 그림 없이 그의 이야기를 제작할 방법도 없었다. 다투리를 쏟아내던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말이죠. 죽어보니까 세상인심을 알겠습디다. 돈 잘 벌 때 내가 그렇게 술 사주고 골프 시켜주고 하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내 장례식에는 10분의 1도 안 왔어요. 물론 부고를 열심히 알리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자기네들 경조사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그게 아무 필요 없더군요. 게다가 그나마 참석했던 사람들도 방명록을 보니까, 내가 자기네들 경조사에서 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부의금을 냈더라고요.”

정승 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파리만 날린다는 속담을 그는 자신이 죽었던 경험을 통해 몸소 체험한 것이었다.

취재했던 내용을 부장에게 전했다. 부장은 자신이 말하기 꺼끄러웠던지 내게 직접 국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국장은 납득했다. 국장 역시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더 난처한 지경에 빠뜨리긴 싫었던 것이다. 그렇게 황당무계했던 취재는 끝이 났다.

이런 취재 이야기는 그 이후 몇몇 PD들에게 흘러 들어가, 대박소재라며 다뤄보길 원하는 요청이 쇄도했지만, 나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야깃거리의 소재로 등장하면서 불행해질 김 사장의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 김 사장이 겪었던 일은 나의 뇌리에 선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에 대한 기억은 나로 하여금 자동으로 내 주변의 인

간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좋을 때나 곱을 때나 내가 변치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해 왔던가’하는 물음이다. 돌이켜 보건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오래 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직장 상사와 가까운 고등학교 동창의 갑작스런 죽음 때, 나는 생전에 밀접했던 관계만큼 그들과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또, 김 사장은 인간관계 속에 버티고 있는 이해타산의 숨기고 싶은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줬다. 우리는 오래 친한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하지만, 내면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베푼 것 이상으로 받을 걸 기대 하고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리곤 내게 돌아오는 것이 기대보다 적을 땐, 서운함이 폭발하고 상대를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서운함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계기로 김 사장의 이야기를 회상할 때면, ‘인간관계에서 돌려받는 게 베푼 것보다 적다고 느껴지더라도 크게 서운해 하지 말기’를 나는 자연스럽게 다짐하게 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람으로 비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게 된다. 김 사장의 특이한 인생역정은 내게도 특별한 교훈을 준 셈이다. **OLP**



스포츠는 도전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골프



글. 김수영
OLP 18기
신한금융투자 언론팀장

스포츠는 도전이다. 도전에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골프를 시작한지 4년째에 접어든다. 골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공은 제대로 안 맞고 온 몸은 망치로 맞은 듯 아플 때 남편(김용준 프로)이 '2000년 PGA 메르세데스 챔피언십' 영상을 보여줬다. 당시 이미 싱글 핸디캡퍼이던 그는 그 영상을 보여 주면서 '골프를 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고 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스포츠 정신이라며.

지난 2000년 PGA 메르세데스 챔피언십은 하와이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렸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190cm가 넘는 장신으로 '빅 이지'로 불리는 어니 엘스가 마지막 날 챔피언 조에서 격돌했다. 빅 이지란 별명은 큰 키에 너무나도 부드러운 스윙을 해서 붙은 별명이라고 했다. 최종 라운드 18번 홀을 앞두고 두 사람 모두 14언더파로 동점. 그날 18번 홀은 663야드로 PGA 투어 사상 가장 긴 홀이었다. 두 플레이어 모두 이 홀에서 370야드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타를 날렸다. 드라이브를 치고 나니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둘 다 290야드 남짓이었다. 먼저 타이거 우즈가 3번 우드를 꺼내 들어 시원하게 세컨 샷을 날렸다. 공은 홀에서 4.5m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갤러리들은 열광했다. 버디는 따 놓은 당상이었다. 이 글도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에 승부의 추는 타이거 우즈 쪽으로 기울는 듯 했다. 그러나 어니 엘스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2번 아이언을 잡고 그의 전매특허인 부드러운 스윙을 했다. 볼은 먼 거리를 날아 구르더니 우즈의 볼보다 홀에 더 가깝게 붙었다. 홀까지 거리는 불과 3.5m. 갤러리는 탄성을 뿜어냈다.

이제 부담은 우즈가 갖게 됐다. 4.5m라면 PGA 투어프로의 평균 성공률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우즈의 퍼팅은 그의 전매특허인 어퍼컷 제스처와 함께 홀로 빨려 들어갔다. 이글이었다. 갤러리는 미친 듯 소리를 질러댔다. 어니 엘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PGA의 3.5m 퍼팅 평균 성공률은 35% 정도이다. 놓아야 연장전에 가고 놓치면 나흘간의 승부에서 패배하게 되는 상황.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어드레스를 하고 퍼트를 했고 볼은 놀랍게도 홀에 떨어졌다. 갤러리는 다시 한 번 광란의 도가니였다. 악수를 나눈 두 승부사는 잠시 후 연장전에 돌입했다. 같은 홀에서 다시 치른 연장전 첫 번째 홀에서는 두 사람 모두 버디를 기록하며 다시 갤러리의 혼을 빼놓았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타이거 우즈와 어니 엘스는 거의 비슷한 거리의 퍼팅을 남겼다. 타이거 우즈는 12m, 어니 엘스는 11m. 먼저 한 우즈의 퍼팅은 홀에 떨어졌지만 엘스는 버디를 놓쳤다. 이글과 버디 다시 버디로 이어진 타이거 우즈의 샷은 PGA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플레이 중 하나로 남았다. 그러나 어니 엘스의 영화보다 더 멋진 플레이가 없었다면 그만큼의 박진감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역전을 거듭한 경기에서 두 사람은 플레이 도중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대의 굿 샷에 '에이, 쟤네.' 하고 생각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상대가 당연히 굿 샷을 칠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했을 것이다.

사실 영상은 재미있게 보았지만 처음에는 스포츠는 도전이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도전하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남편에 말에 뭘 소린가 하고 짜증도 났다. 학창시절 피구를 마지막으로 평생 스포츠라고는 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그 말들이 와 닿지 않았던 것이다. 공으로 하는 운동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살아 있는 야구공도 맞았는데 그냥 서 있는 골프 볼은 제대로 맞힐 수가 없는 걸까.

내가 골프를 처음 배운 것은 추운 겨울이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책잡히기 싫어서 영하의 날씨에도 억지로 클럽을 휘둘렀다. 유연성이 떨어진 내 몸은 여기저기 아우성이었다. 허리도 아프고 그림을 잡았던 양 손가락은 막대기처럼 뻗뻗해져서 오그렸다 펴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골프 볼을 드라이버, 아이언 등으로 맞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는 100타 안팎을 칠 수 있게 됐다. 딱 내가 생각했던 정도였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정도 말이다. 그런데 웬걸? 남편은 이제는 보기 플레이를 목표로 연습을 하란다.

주중에는 회사일로 바빠 연습 못한다고 주말마다 연습장에 데려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다. 당시에 남편은 아마추어 상급자이긴 했지만 프로가 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늘 골프 규칙에 맞춰 라운드를 했고 끊임 없이 샷에 대해 고민을 했다.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 저만큼 치면 됐지 뭘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프로가 되었다. 40대 중반에 말이다. 같이 프로가 된 동기들은 거의 다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었다. 남편이 최고령 합격자였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골프는 도전이다'라는 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그에 따라 골프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연습의 집중도도 달라졌다. 퇴근하고 지쳤는데도 집 앞 놀이터에서 연습용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렇다고 골프가 쉬워지지는 않았다. 힘과 유연성이 부족한 나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였다. 라운드를 자주 못 나가는데 연습장에서 휘두른다고 과연 실력이 늘지 의구심도 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다. 내 판에는 죽어라고 연습하는데도 '그렇게 대충 연습할 거면 때려 쳐라'는 남편의 구박을 들어야 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6월 충주시 세일컨트리클럽에서 81타를 치게 됐다. 너무 기뻐다. 어떻게 드라이브 샷을 치면 페어웨이에 떨어지고 세컨샷은 온 그린 되는지. 혹시 그린에 못 올린 것도 어프러치로 갖다 붙였다. 그 넘어 오신 것처럼 퍼팅도 쓱쓱 떨어졌다. 기적 같았다. 그렇게 내 인생 첫 싱글을 기록했다. 그러나 동반한 남편은 70대 타수를 쳐야 진짜 싱글이라며 싱글패도 해주지 않았다. 진짜 싱글을 할 때까지 수련해서 싱글패를 받으라고 했다. 싱글의 기쁨도 잠깐.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오만해져서 연습을 게을리 했더니 다시 90대 후반 타수로 돌아왔다. 골프는 도전이라는 말을 잊어버린 것이다.

내 골프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라운드도 자주 나가지 못한다. 그래도 나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꼭 '진 싱글'을 기록해 싱글패를 손에 쥌 것이다. **OLP**



—
런던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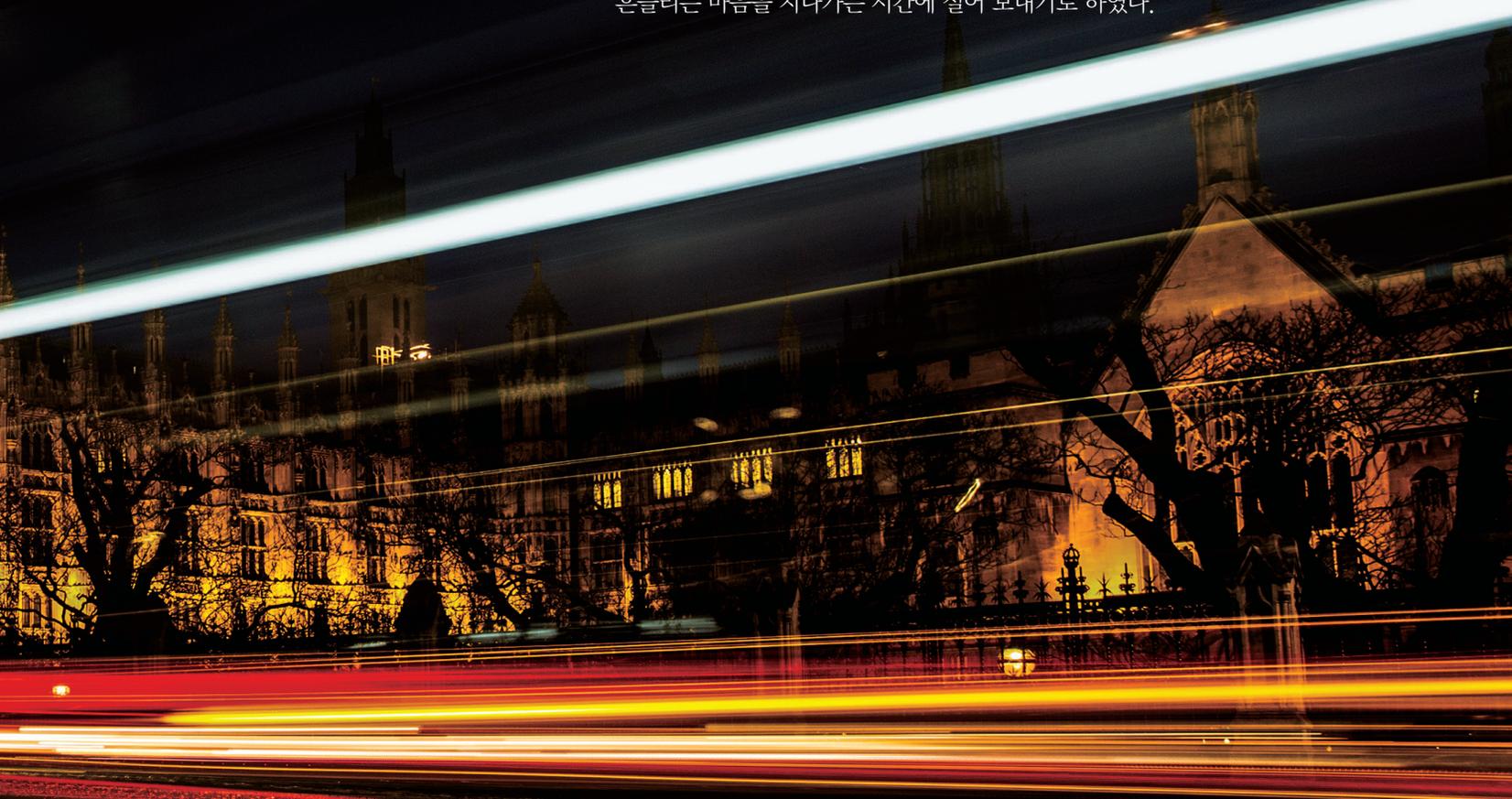
—
클.
지태현
OLP 9기
Shire-HGT
Representative/
Consulta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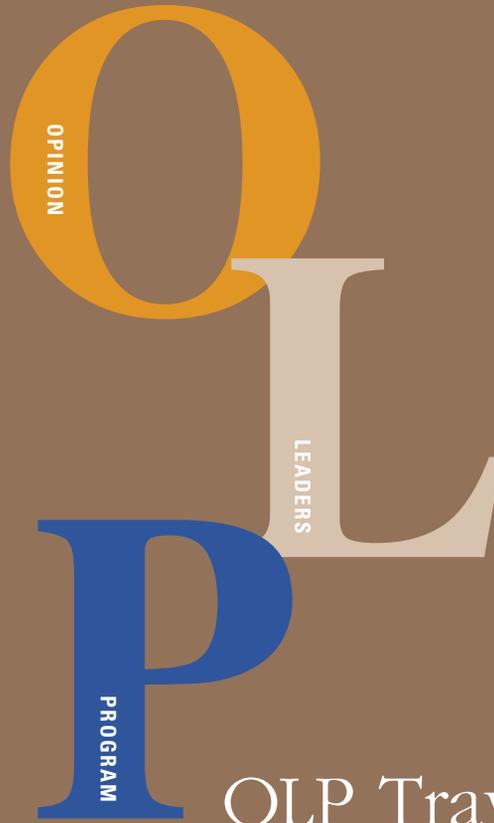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내 마음 이었다.
그래서
마음만큼은 내 것 인줄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끝없이 움직이는 내 마음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시간만큼은 내 것 인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마저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었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지나가는 시간에 실어 보내기로 하였다.





OLP Travel Essay

—

OLP 1기 보길도 탐방
박병한 OLP 1기

가족 휴가 여행 떠나기
유복환 OLP 11기

남도답사 일번지
오원정 OLP 12기

시모노세키 단상
김홍익 OLP 8기

폴란드 소도시 여행
지태현 OLP 9기

혁명 토굴과 유배 저택
김동원 OLP 16기

OLP BOOK REVIEW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문규선 OLP 13기



OLP 1기

보길도 탐방



—
글.
박병한
OLP 1기
YTN 부국장

2002년 여름 서강대에서 회사로 공문이 왔다. 경제대학원에서 오피니언 리더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추천해 달라고. 다른 기자들이 무심한 틈을 타 재교육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던 내가 단독 신청해 결국 서강대 출석을 하게 됐다.(요즘은 서로 OLP에 가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추천 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한다고 들었다.)

남성일 주임교수를 모시고 기업인과 언론인, 법조인 등이 모여 경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업 내용보다는 주임교수님의 썰렁 퀴즈가 더 많이 기억난다. 소 한 마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퀴즈에 'DJ라면 북한으로 보낸다.'가 답이었다.

주옥같은 강의 몇 편도 기억하는데 김영기 LG전자 부사장님의 강의가 가장 기억난다. IBM과 GE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CEO를 교체할 때 절차에 관한 강의였는데 수강생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CEO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CEO 후보를 3명 이상 정해야 하고 그것은 자기 이익과도 관련된다.”는 흥미로운 지적이었다. 태국 졸업여행까지 마친 우리는 1기를 수료했지만 그 후에도 신동수 회장님, 강대원 회장님 등의 수고로 가족을 동반해 제주도, 보길도, 경주, 외도 방문이 있었고 특히 보길도는 이번까지 포함해 4차례 방문이 있었다.

꿈결에 예송리 해변 자갈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소주 한잔으로 탈 서울의 기쁨은 만끽하곤 했는데 그동안 보길도 명성이 널리 알려져 이번 4차 방문에는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한 차례도 오지 못했던 몇몇 원우들이 처음 참석했고 이영미 원우는 동생 부부까지 참석했다.

2002년 가을 30여명의 단란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OLP였는데 요즘 전체 OLC 모임에 가면 수백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해 1기로서는 가끔 당혹감(?)도 느끼나 이것 또한 받아들여야 할 과정임을 느낀다. 14년 전 가을 서강대 교정에서 맺어진 첫 인연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OLP**



가족 휴가 여행 떠나기



글.
유복환
OLP 11기
ADBI 부소장

아내와 아들 둘(공군중위와 대학4년), 온가족이 휴가여행을 다녀왔다. 2박 3일 일정의 제주도 여행이었다.

출발당일, 김포공항 가는 길에 택시기사가 덕담을 건넸다. 부모를 따라 여행에 나선 '착한아들'이라고 칭찬했다. 제주공항에 내려 렌트카를 타고, 섭지코지에 있는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 체크인했다. 그리고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으로 향했다. 갤러리는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서 와서 자연을 느껴보라고, 마음을 고요히 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삼시간의 환상이 있다고, 여기에 흠뻑 빠져보라고 속삭였다. '찰나의 열반'을 가슴에 품고 갤러리를 나온 뒤에도 오랫동안 '은은한 감동'을 경험하였다. 갤러리에서 본 제주도 구름사진의 영향인지 제주의 2박 3일 내내 자주 하늘로 머리 들어 구름을 보았다. 섭지코지 등대에 올랐다. 섭지코지를 둘러본 뒤 그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 민트에 들렀다. 일명 '글라스 하우스'로 불리는 이 레스토랑은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물이다. 모든 창의 전망이 바다로 향한 아름다운 레스토랑이었다. 가까이 보이는 일출봉 옆으로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며 아이들과 아내는 탄성을 터뜨렸다.

둘째 날의 주제는 제주의 건축물 보기였다. 우선 재일동포인 이타미 준이 설계한 건물들을 보러 나섰다. 제주도의 서남부지역에 모여 있는 제주 방주교회, 핑크스 포도호텔, 그리고 비오토피아가 그것이다. 방주교회는 감동적이었다. 유럽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절 구경 하듯 많은 교회를 보았지만 방주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 하나였다. 교회 자체는 그 이름처럼 물 위에 떠있는 배(노아의 방주)처럼 세워져 있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 사이로 제주의 자연이 뒤로 보이고, 예배실 자리 옆의 창 너머로 잔잔한 수면이 보여 교회가 물위에 등등 떠 있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쏟아 붓는 홍수를 피하여 방주 속으로 피신을 한 듯한 감동이 물려왔다.

근처의 제주 핑크스 포도호텔은 제주의 오름과 초가집을 모티브로 건축되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송이 포도와 같다하여 이름 지어졌다. 비오토피아는 주거단지여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기회에 출입가능한 사람과 동반하여 보러가야겠다. 다음은 휘닉스 아일랜드 내에 있는 '지니어스 로사이'에 들렀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

의 작품이고, 명상과 영성을 깨우치게 하는 건축물이었다. 문경원작가의 미디어 아트인 'Diary'와 '어제의 하늘, 그리고 오늘'이 전시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유하며,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건축물과 전시였다. 저녁식사는 제주의 해산물로 배를 불리고 성산일출봉 등정에 나섰다. 더운 날씨를 피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시간을 잡아 등정에 나섰다. 등산을 싫어하는 아내도 끝까지 정상에 올라 두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일출봉 정상에 오르니 밤이 되어 하늘에 떠오른 달을 보는 월출봉이 되었다. 달빛을 받은 일출봉과 그 아래 어촌마을, 그리고 먼 바다에 서는 오징어 배들이 검은 바다에 환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다음날은 마음먹고 새벽 5시에 기상하였다. 잠이 더 좋은 아내와 작은 아들은 호텔에 두고, 큰이들과 함께 성산일출봉에 다시 올랐다. 우리 국토의 남단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싶었다. 장엄한 일출이었다. 성산일출봉 입구에 찍혀 홍보하는 일출의 사진과 거의 똑같은 아름다운 일출을 보았다. 지난 휴가 때 한국에서 최고의 낙조지라는 증도에서 일몰을, 그리고 이번에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아 나름 흐뭇했다. 오전에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생활을 한 유배지를 찾았다. 세한도를 그린 그 곳이었다. 김정희는 8년이 넘는 유배생활을 통하여 큰 자취를 남겼다. 추사체를 만들어 내었고 3000명의 제자를 길렀다. 3천명이라면 당시 제주의 젊은 선비는 거의 모두 추사에게 배우고자 했던 것 같다. 추사는 제주의 풍토병으로 고생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 시기가 그를 역사적인 인물로 만든 담금질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 휴가 때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했던 강진에 들렀을 때 느꼈던 감회와 비슷한 감정이 들었다.

뜨거운 햇살로 인해 만장굴이 최고의 피서공간이 되었다. 만장굴을 들어가니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올 때는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거침없이 아이들 형제는 저만치 앞서고 아내와 나는 천천히 걸으며 태고 적에 만들어진 신비한 동굴 분위기를 즐겼다. 만장굴을 나

와 정방폭포로 향했다. 서귀포의 바닷가에 있는 정방폭포는 거대한 물기둥을 세워 놓은 듯했다. 수직절벽에서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장관이었다. 이러한 폭포는 동양권에서 단 하나뿐인 절경이라고 한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의 명으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서북과 동남동녀 500여명이 이곳에 왔으나 끝내는 구하지 못하였다. 돌아가면서, 서북이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지'(徐市過之, 서북이 이곳을 지나다)라고 새겨 흔적을 남겼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서귀포도 '서북이 돌아간 항구'라는 뜻으로 나온 이름이다. 돌아 나오는 길에 엄마아빠가 신혼여행 때 묵은 서귀포 KAL호텔에 들려 아이들에게 가족사의 현장을 보여주었다.

제주도 동해안을 따라 해안도로를 돌면서 함덕 해수욕장에 들렀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차가운 바닷물을 몸으로 느꼈다. 멀리 모터보트를 따라 바나나 보트가 신나게 회전하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마음이 동해 바나나 보트 타기를 원했다. 탑승자는 우리 아이들 두 명만으로 바나나 보트의 처음과 끝에 멀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모터보트 운전자는 아이들의 타는 자세가 좋아서 모터보트를 더 빨리, 더 멀리 운전했다고 한다. 몸이 파도로 흠뻑 젖은 아이들은 내친김에 한바탕 바다 수영을 즐겼다.

제주공항 근처의 제주도 랜드 마크인 용두암에 들리는 것으로 제주여행을 마감했다. 그리고 즐거운 먹거리 경험으로 성산일출봉 근처 백록회관의 고등어회와 고등어 찜, 두툼하게 썬 회인데 맛이 넉넉하고 고소했다. 밤에 먹은 제주 흑돼지 오겹살구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인기였다. 핀크스 포도호텔에서 먹은 전복 물회와 성계비빔밥, 왕새우 우동, 흑돼지 김치찌개, 섭지해녀의 집에서 해삼, 소라, 전복 모듬회, 전복죽, 쟁이죽, 성계칼국수, 썩전, 레스토랑 민트에서 커피와 민트아이스크림, 파인에플루스, 성산일출봉을 내려와서 룻데리아에 들러 먹은 팔빙수, 주행중에 패밀리마트(CU)에서 사서 즐긴 빙수 '설레임', 공항 오는 길에 먹은 제주도 순대, 공항식당에서 시도해본 그동안 못 먹어 본 제주의 토속음식, 말고기철판구이, 메밀빙떡과 오메기떡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감귤 초콜릿과 오메기떡을 더 사가지고 왔다. 아내에게도 나에게도 기억에 남을 가족휴가 여행이었다.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OLP**



강진·해남
둘러보기

‘남도답사 일 번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구입해서 읽은 후 직접 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 때가 199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저자인 유홍준 교수는 강진/해남을 ‘남도답사 일 번지’ 라고 했습니다. 가고 싶던 그 곳을 지난해 가을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가는 날과 오는 날을 제외하면 3일간 둘러 본 셈입니다. 첫날 저녁에 강진읍에 도착해서 숙박하고, 이튿날 영랑생가, 사의재, 고려청자박물관, 가우도 출렁다리, 다산초당, 백련사를 거쳐 주작산 휴양림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셋째 날 석문정, 고산윤선도유적지, 고천암 방조제, 울돌목을 지나 땅끝 마을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넷째 날 달마산 미항사를 구경하고, 다섯째 날 강진시장에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진 · 해남 1일차

강진읍에 있는 숙소에서 영랑생가와 사의재는 멀지 않아 걸어서 가기로 합니다. 영랑생가에 들어서서 우선 시비에 새겨진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읽은 후 문간채를 지나 안채까지 가서 툇마루에 걸터앉아 영랑 김윤식 시인 소개 글을 상기하며 밖을 내다봅니다. 아담하고 정갈하게 복원된 생가는 이른 아침이라 관람객이 없어서 더욱 호젓해서 시간이 머무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채 뒤 동백나무가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시인의 생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생가 옆 시문학파기념관에서는 수주 변영로의 논개 등 교과서에 실렸던 시를 몇 수 읽어봅니다. 군청을 지나 골목에 위치한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주막에서 4년간 기거하던 방입니다. 네 가지를 - 생각을 맑게, 용모를 단정하게, 말을 적게, 행동을 무겁게 - 마땅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끝벽적했을 주막 풍경이 그려지며 다산선생은 어떻게 견뎠을까 궁금함이 더해집니다. 주막 돌담 한 칸에 정호승 시인이 지은 ‘다산주막’ 시비가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 방치된 느낌마저 들어 심란합니다.

미량향 가는 길에 위치한 고려청자박물관과 그 주위를 산책하고 가우도(駕牛島)로 향합니다. 섬의 모양이 소의 멍에처럼 생겼다 해서 가우도입니다. 2011년에 섬 양쪽으로 현수교가 놓여 졌는데 보행전용입니다. 이름처럼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만 세찬 바람이



글. 오원정
OLP 11기



불면 바다 위를 걷는다는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함께 海길’이라는 둘레길을 걸을 때 나무사이로 보이는 강진만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한쪽은 데크, 또 한쪽은 흙길로 조성되어 있어 걷기에 좋은 길입니다. 다산기념관에 주차하고 다산초당까지는 걸어서 가야 하기에 내친김에 백련사까지 왕복으로 걸어봅니다. 지금은 등산로처럼 되어 있지만 옛적에는 오솔길 정도였을 텐데 다산의 제자들이 초당까지 다닌 것이나 다산이 백련사까지 가고 올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진 · 해남 2일차

고산윤선도유적지로 가는 길에 석문계곡에 들렀습니다. 석문정이라는 정자에서 바위산을 돌아 도로와 계곡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를 건넙니다.(2016년 8월 개장) 그 밑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세종대왕바위가 독특합니다. 바위 실루엣으로 탕건을 쓴 왕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외부에서 보면 1층 기와집으로 보이지만 지하층도 있습니다. 주변 녹우당 고택과 조화를 이루고, 지하층에 있는 전시관은 후면 경사를 이용하여 외부로 연결됩니다. 설계가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관에는 고산 윤선도와 공재 윤두서 등 해남 윤씨 가문에서 지켜 내려온 유물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고산 선생은 한글로 글을 남겨 국문학의 비조라 불리며, 공재 선생은 뛰어난 예술 감각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자화상을 정면으로 그린 것은 당시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녹우당 고택은 수리 중입니다. 녹우당 뒷산 중턱에 있는 비자나무숲을 향해 약 500m를 걸어 올라갑니다. 수령이 500년가량 된 비자나무가 군

건하게 서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제주 비자림과 비교됩니다.

고천암 방조제는 갈대밭이 유명합니다. 해질 무렵이라 갈대는 바람에 은빛으로 춤을 추고 강물은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진도대교 밑 울돌목에 도착하니 저녁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내려가니 진도 쪽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입니다. 바닷물이 세차게 흐르고 일부구간에서는 소용돌이까지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저녁이라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전쟁 장면이 어슴푸레 그려집니다.

강진 · 해남 3일차

땅끝 마을입니다. 숙소에서 전망대까지 산책로를 따라 걸어 갑니다. 간혹 땅끝 마을 해안선과 섬들이 언뜻언뜻 보이는 숲길입니다. 새로이 지어진 전망대에서 남해를 바라보는 전경이 여느 다도해와는 색다른 느낌입니다. 국토 남단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달마산 바위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미황사에 들어섭니다. 대웅보전 앞에서는 괘불탱화를 앞마당에 내걸기 위한 괘불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주춧돌에 새겨진 거북 조각상이 많아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절 좌측 등산로를 따라 달마산에 오릅니다. 완만한 길을 조금 가니 금세 돌과 바위길이 나타납니다. 한참을 가파르게 올라가니 정상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바위가 온통 줄 지어 있으며 미황사 숲과 가을 들녘,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남도 풍경이 펼쳐집니다.

남도답사 일 번지를 둘러보기 위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와 현지 관광지도도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답사 보다는 유람 형식으로 다녀온 기억을 공유하고자 어설피지만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OLP



던 시모노세키를 여행지로 정했다. 시모노세키라고 하면 가끔 육두문자를 써야 할 때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름이고 부산을 왕복하는 부관페리가 있어 친숙한 도시이지만 여행지로는 그닥 인기 있는 도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 개항지이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대륙진출의 기반을 다진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곳이라는 역사성과 더불어 해산물과 온천이 좋다는 어느 블로거의 글에 끌려서 목적지로 정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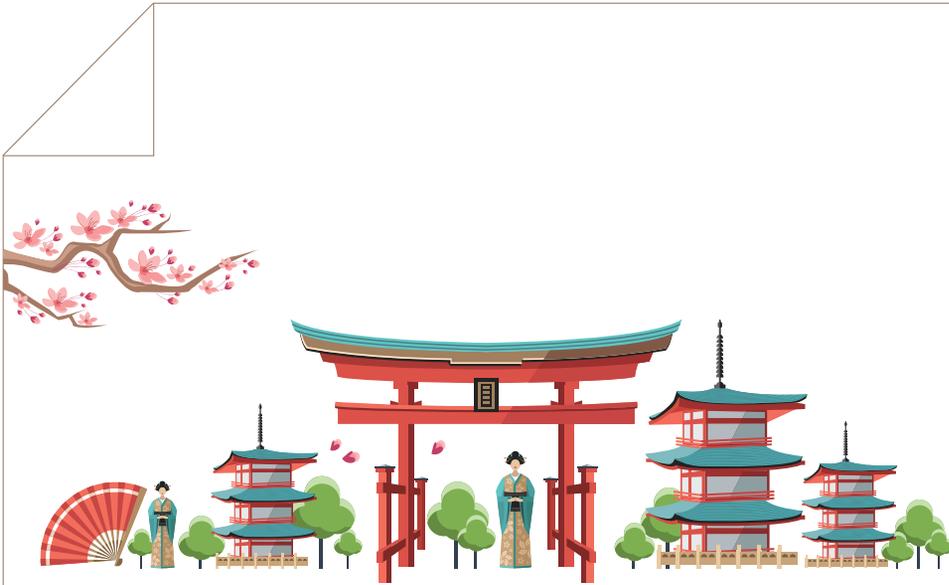
2박 3일의 빠듯한 일정이기도 하고 혼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 여행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여행 컨셉(?)로 일본만의 숙박문화인 캡슐호텔과 비즈니스호텔 싱글룸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여행 첫날은 늦은 도착으로 후쿠오카에서 1박. 후쿠오카의 장점은 공항에서 멀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도시가 도심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바닷가에 인공섬을 만들어 국제공항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선 터미널에서 공짜 셔틀을 타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하철로 30분 안에 도심에 도착할 수 있어 후쿠오카 공항을 이용할 때면 마음이 아주 편하다.

밤 9시경 짐을 맡기기 위해 도착한 캡슐호텔은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는 빌딩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갖추었고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샤워실과 개인 락커가 구비되어 있었다. 2층으로 배열된 침대는 혼자 자기에 충분했고 소형 액정 TV가 천정에 달려있고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었으며 전등스위치와 알람, 콘센트가 하나의 셋톱박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평일의 늦은 시간임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일본 아저씨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2층 침대가 나란히 배치된 복도에서는 간간히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바쁜 일정에 대여섯 시간 수면을 취해야 하는 여행자에게 4500엔의 가격은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유흥가 주변에 24시간 영업하는 주점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심야의 비싼 교통비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먹고 새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알뜰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보다 신도시 개발의 역사가 길고 그 신도시의 범위가 철도라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꽤 광범위한 일본의 환경이 캡슐호텔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낳은 것이라 단정해 본다.

기대 이상의 숙면을 취하고 아침 일찍 기상해 전날 밤에 한국과 중국 관광객의 폭풍 쇼핑으로 도무지 계산대에 설 엄두가 나지 않았던 대형저가형 마트(이 설명이 맞는지) 돈키호테(유통업계의 돈키호테가 되기 위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에 들러 여유 있게 짐사람이 주문한 골든 카레 5개를 구매했다. 일본에 여행하는 지인들에게 반드시 방문해 보라고 권유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돈키호테다. 특히 유통업에 종사하는 지인들에게 강권한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라고, 여유 있게 하카다역



—
클.
김홍익
OLP8기
신한은행 지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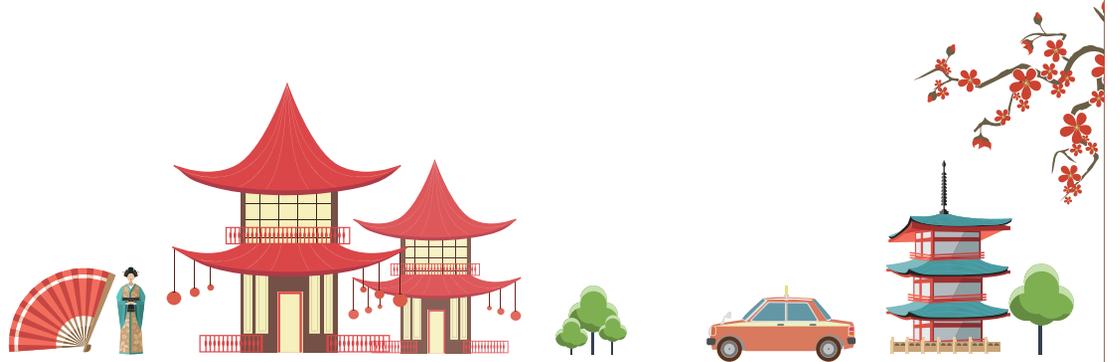
으로 가 시모노세키행 기차표를 구매하고는 역사 내에 있는 맛집 일포르노텔미농에 줄을 서서 기차에서 먹을 크로와상을 샀다. 하카다역에 올 때마다 들르는 곳인데 언제나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하카다역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이 크로와상과 에키벤(역도시락)을 맛보라는 것이 지인들에게 하는 두 번째 강권이다.

일본은 철도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다. 국가와 민간기업이 함께 철도를 발달시켰다. 그 덕분인지 일본 철도는 편리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비싼 가격이 흠이라면 흠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할인 티켓이 잘 발달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할인 패스도 여러 가지이지만 갑자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 특히 왕복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2매 세트 티켓, 4매 세트 티켓(일본말로 니마이깃푸, 온마이깃푸)는 편리하다. 2매를 혼자 써도 되고 두 명이 써도 된다. 3명이 왕복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2매 세트와 4매 세트를 사용하면 된다. 할인 폭도 크다. 일본에서 사전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여행자라면 반드시 이용해볼 만한 할인제도이다.

9시 2분 하카다를 출발해 고쿠라역에서 일반 기차를 갈아타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니 10시 16분. 중간에 고쿠라역에서 맞본 달걀 띄운 우동(보름달 우동)은 대전역에서 먹던 가락국수를 떠오르게 한다. 하여간 시모노세키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항구도시 시모노세키의 첫인상은 쇠락!

일본 개항의 선봉지였던 도시에서 초라한 오래된 도시로 전락했다는 느낌. 평일이었음에도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들어서 그런지 활력이 없다는 느낌이었다. 여행안내서가 알려준 해산물과 초밥의 성지(?)라는 가라토시장만은 예외다. 우리나라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동 시장을 떠오르게 한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각종 초밥을 뷔페식으로 판매하는 상점 주변은 인산인해다. 100엔 초밥부터 500엔 하는 참치 대벳살 초밥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복어로 유명한 시모노세키라서 그런지 복어 초밥과 졸복 튀김 복어된장국 복어죽 등 복어로 만든 먹거리가 풍부하고 비싸지 않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밀려드는 인파에 휘둘리지 말고 찬찬히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사서 시장 내 마련된 간이 의자나 식탁에서 즐기면 된다. 우리나라 수산시장이 회를 떠서 매운탕을 먹는 곳이라면 가라토 시장은 초밥과 튀김류를 사서 맥주 한 잔 하는 곳이랄까. 날씨가 좋으면 가라토 시장 앞 풀밭에서 시모노세키 해협과 멀리 칸몬 대교를 바라보며 최고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모노세키는 큐슈 지역이 아니고 혼슈의 야마구치현에 속해 있다. 건너편 북큐슈의 모지항과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다리가 시모노세키의 관(關)자와 모지의 문(門)자를 따서 이름 지은 칸몬 關門대교이다)

칸몬 대교는 샌프란시스코의金門교를 연상시킨다.



칸몬 대교가 놓여진 곳이 큐슈와 혼슈를 잇는 최단 거리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다리 밑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도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무료다. 가라토 시장에서 북어 요리로 배를 채우고는 걸어서 칸몬 터널을 넘어 혼슈에서 큐슈로 넘어왔다. 780m의 지하터널 중간에는 아마구치현과 후쿠오카현의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다. 이번 여행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칸몬 터널을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 검정색 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건장한 사람들이 몇몇 보였다. 자세히 보니 위키토기도 들고 귀에 이어폰도 꽂고 있다. 도로 횡단을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한 사람의 요청에 알았다고 응답하는데 길 건너편에 검정색 대형 세단이 멈추고 몇몇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종종 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뒤따라 내린 여성은 앞선 사람의 부인인 듯 한 데 주변 차량에 미안하다는 듯이 머리를 숙이고는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앞의 남성을 따라갔다. 일본 총리인 아베와 그의 부인 일행이었다. 칸몬 터널 입구 주변은 일본 개항당시 역사적 장소였고 마침 그곳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이다. 사진이나 TV에서 보던 모습과 정말 똑 같았다. 정말 잠시. 약 1, 2분의 차량 통제에도 미안한 듯한 목례와 종종 걸음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수상부부의 모습과 국정농단으로 탄핵대상이 된 우리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모습이 겹쳐져 잠시 묘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그래도 그 순간에 내

가 도시락 폭탄을 준비해 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다.

시모노세키 건너편의 모지항 주변은 새로 개발된 쇼핑센터와 과거 개항 당시의 건물을 복원해 신구의 조화를 도모한 관광지였다. 영국공사의 저택과 옛 세관 건물을 둘러보고 편도 400엔의 보트를 타니 10분도 되지 않아 다시 시모노세키. 좁은 해협을 놓고 서양문물의 수용과 쇄국의 국가적 갈등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저 무심하게 빠른 속도로 해류만 흐르고 있다. 시모노세키 숙박은 비즈니스호텔로 정했는데 블로거가 10층에 자리 잡은 아담한 온천과 각종 북어요리가 제공되는 아침 뷔페를 강조하며 추천한 곳이라 기대를 한 곳이었다. 먼저 10층에 자리 잡은 온천은 작지만 아담하고 노천온천에서는 바다가 보인다. 게다가 사람도 없다. 멀리 바다를 보며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온천물이 만드는 환상적인 분위기에 취했다. 일본 온천 여행의 묘미를 비즈니스호텔에서 맛보았다. 다음날 아침 좁은 식당이 만원이다. 블로거의 추천대로 북어밥, 북어튀김, 북어수육, 북어죽, 북어된장국까지 북어회와 북어초밥을 제외하고 모든 북어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하룻밤 숙박이 6900엔인데, 온천에 아침뷔페에 시모노세키역까지 무료셔틀까지. 이 이상은 절대로 없다. 2박 3일의 짧은 시모노세키 여행이지만 2017년 대운이 열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OLP**

폴란드의
소도시 여행
폴스키
버스를 타고

브로츠와프로
w r o c l a w







01

바르샤바의 쇼팽 공향에 첫발을 내딛자 코끝이 싸 하다. 이미 기내 방송을 통하여 현지 기온을 알고는 있었으나 직접 느끼기에는 서울 보다는 훨씬 차다는 느낌이었다. 입국 심사장에는 그리 많지 않은 여행객들이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내 차례에 만난 입국 심사 공무원은 마치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군복과 비슷한 국방색의 모직 제복에 전장까지 붙인 젊은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그녀에게 제복은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었다. 그녀는 내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는 또 다시 어디서 출발 했는지도 한 번 더 묻는데 그 모습이 참 밝고 투명하였다. 그동안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보아 왔던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반갑게 맞아 주는 듯한 그런 표정 이었다. 폴란드인에 대한 첫 느낌은 공항에서 느꼈던 기온과 함께 상큼 하였다. 바르샤바 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도심의 외곽을 벗어난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층 버스의 차창 너머로 멀리 내다보이는 풍경은 끝없이 넓게 펼쳐지는 옥수수 밭과 함께 들녘 중간 중간에는 조림 한 듯이 보이는 소나무 숲이 언뜻 언뜻 지나간다.

들판은 낮게 드리워진 검은 구름으로 인하여 다소 어둡해 보이는 했지만 들판 한가운데서 홀로 서있는 풍력 발전기는 심심한 듯 천천히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는 모습과 함께 주변 들녘에서 트랙터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도 보였다. 또한 농부의 근처에서는 야생인지 방목하여 기르는지 모를 사슴 몇 마리가 떼 지어 들판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도 보여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 이었다.

빨간색의 폴스키 버스(polskibus.com)는 의외로 서비스가 좋았다. 차장(안내원)이 동승하여 거의 에스프레소 수준의 진한 커피를 직접 뽑아 주기도 하고 핫 초콜릿도 원하는 승객에게는 몇 번이고 서비스 해 주었다. 물론 장거리 운행 버스라 그렇겠지만 충분히 편안하게 제작된 의자는 거의 항공기 수준이었고 또한 차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도 다양하였는데, 음악도 장르별로 그리고 가수별로 제공 되었고 영화나 드라마 까지도 제공되었으며, 실시간 지피에스(GPS) 까지 서



클.
지태현
OLP 971
Shire-HGT
Representative/
Consultant



02



03



04

- 01 성당의 섬 입구에 있는 툼스키 철교와 많은 자물쇠가 매달려 있는 모습
- 02 성당의 섬 전경
- 03 아름다운 건물과 다양하게 채색된 아름다운 올드 타운 광장
- 04 올드 타운에 있는 아름다운 구 시청 건물

비스 될 뿐만 아니라 버스 내에서 와이파이(WIFI)도 팡팡 터지니 장거리 여행에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다. 게다가 버스의 가격은 열차에 비하여 거의 십분의 일 수준 이었다. 바르샤바에서 브로츠와프까지 약 다섯 시간 정도 운행하는 동안 두 잔의 커피를 서비스 받았으니 커피 값을 제외 한다면 버스비는 거의 무료 수준이었다. 만일 사전에 일찍 예약을 한다면 버스비는 더욱 저렴해진다고 하니 버스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의아할 뿐이었다.

버스에서 제공하는 노란색 이어폰을 귀에 꼽고 진한 에스프레소 향과 함께 영국의 유명한 팝 가수 아델(Adel)의 감성이 풍부하게 녹아든 'Set Fire To The Rain'을 들으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투명하지 않고 다소 어두운 풍경을 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여행을 하며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들과 분위기를 만나는 것이었다. 한동안 음악에 취해 있는 동안 버스 차창에 부딪치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듯 했지만 버스가 브로츠와프 터미널에 도착하자 오던 비는 그치고 짙은 햇살에 도시가 반짝 빛났다.

브로츠와프의 랜드마크인 성당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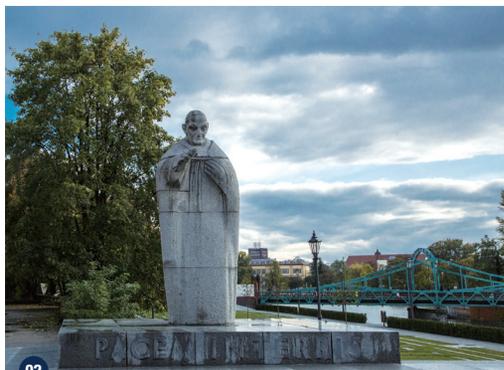
숙소에 체크인 한 후 호텔 직원에게 브로츠와프에서 유명한다는 난쟁이(드워프 영감) 동상이 어느 곳에 있는지 물어 보

니 직접 찾아보아야 재미있다고 웃으며 시내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지도를 받아 들고 가장 먼저 찾아 갈 곳은 브로츠와프의 랜드 마크인 성당의 섬 (Cathedral island)에 있는 성 요한 성당(Cathedral of St. Johan the Baptist)이었다. 멀리서 보는 성당은 모습도 장엄하고 멋져 보였지만 오르다(Orda) 강 위에 솟아 있는 섬과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잘 조화되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성당이 있는 섬의 입구에 도착하자 섬으로 이어주는 툼스키 철교(Tumski bridge)위에서는 버스킹 공연 중인 할아버지 한 분이 애절함이 느껴지는 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하고 있었으나 비가 온 뒤끝 이어서 아쉽게도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작은 철교위에는 젊은이들이 서로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고 그 약속이 변함없기를 바라며 꼭 잠가 놓은 자물쇠가 푹푹 잠긴 채로 주렁주렁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성당에서의 약속이 변치 않도록 다시 한 번 다리 위에서 확인하며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철교를 건너 섬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단체 관광객들이 줄지어 성당과 성당 내부를 관광하는 모습과 이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가이드의 모습이 보였는데 성당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엄한 아름다움 못지않게 다양한 히스토리가 숨어있는 듯 했다. 성당의 섬을 돌아보고는 발길을 돌려 올드 타운으로 향했다. 넓지 않은 인도



01



02

주변에 서있는 가로수들은 방금 내렸던 빗물을 머금고 햇빛에 더욱 생기가 넘쳐 보였으며 근처에는 폴란드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오로 2세의 석상이 넉넉한 표정으로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리에는 전차의 전깃줄이 마치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었지만 복잡한 차도 사이를 건너자 멀지 않은 곳에 올드 타운이 있었다.

난쟁이 영감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한 올드 타운

과연 어떤 난쟁이 영감이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줄지를 기대를 하며 난쟁이 동상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한 난쟁이 동상은 ATM기계 아래 있었다. 약 3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난쟁이 동상은 카메라를 메고 발아래 더욱 작게 만들어진 난쟁이를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여행 중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다.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러한 작은 동상들로 도시를 특화시켰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작은 도시에 작은 난쟁이 동상은 그럴듯한 아이디어로 인정해 줄만 했다. 올드 타운의 광장도 그리 크지 않아서 천천히 돌아보며 찾은 두 번째 동상은 기념품을 파는 상점 앞에 있었다. 마치 상점을 홍보 하는 듯 한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상점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동상이었다.

광장에서 난쟁이를 찾아보는 관광객들은 우리 뿐만은 아니었다. 초등 학생들이 단체로 난쟁이 동상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으며 동상 앞에서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장난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아마도 선생님의 설명은 난쟁이 동상에 담겨있는 특별한 사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장에서 몇 개의 난쟁이를 더 찾아보았다. 화재가 났는지 바삐 불을 끄러 가는 소방수 난쟁이도 있었고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르는 난쟁이도 있었으며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리에 앉아있는 난쟁이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난쟁이 동상은 원래는 올드 타운에만 세워지기 시작 했지만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브로츠와프 전역에 약160개 정도의 난쟁이 동상이 세워졌고 지금도 시내 어딘가에는 계속 세워지고 있다고 하니 브로츠와프에 다시 한 번 가게 된다면 더 많은 난쟁이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올드 타운 광장 주변의 건물들은 마치 어린 시절에 동화책 속에서 보았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놓은 듯이 아름다웠다. 각각의 건물들은 다양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개성 있는 건물들이었고 서로 조화로웠으며 색감의 배치도 잘 어울리는 듯했다. 비가 개인 후에 푸른 하늘까지 건물의 배경이 되어주니 광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 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구 시청사(Ratusz town hall)건물 앞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구 시청사의 건물이 브로츠와프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불꽃이 타오르



03

- 01 성당의 섬 입구에서 바라본 섬에 있는 성당의 모습
- 02 성당의 섬 주변에 세워진 바오로 2세의 석상
- 03 은행 입구에서 현금 출금하는 모습의 동상
- 04 두명의 난쟁이가 술병을 치켜 들고 술을 따르는 모습의 동상
- 05 카메라를 멘 난쟁이가 더작은 난쟁이를 사진 찍는 모습의 동상
- 06 올드 타운 광장에서 반갑다고 인사 하는 모습의 동상



04



05



06

는 듯 한 모양의 지붕 장식과 주변의 현란한 조각들이 환상적이었으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한 모습의 건물이었다. 하지만 올드 타운에는 이와 같은 고풍스런 건물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광장의 중앙에는 다소 독특하게 표현된 현대적인 기법으로 여러 장의 유리판을 세워 지어진 현대식 분수가 있었는데 그 설치의 배경을 알아볼 방법은 없었으나 워낙에 다양한 조각 작품이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분수대 또한 현대 예술적 감각으로 설치 한 미술의 한 영역으로 과거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예술 기법을 조화롭게 배치한 주민들의 여유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드 타운은 브로츠와프라는 소도시 속에 있는 그야 말로 한줌 밖에 안 되는 난쟁이와 같이 작은 도시였으므로 걸어서 도시를 감상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시내를 둘러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야간에 오르다 강에 비친 성당들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풍경은 아니었고 크리스마스의 카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림 같은 풍경이어서 더욱 멋진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 기간 중에 공항 터미널과 버스 터미널 그리고 카페와 식당에서 만났던 폴란드인들의 친절함은 정말 좋

은 기억으로 남았다. 특히 폴란드 여인들의 소박하고 정감 있는 모습에서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서유럽 여인들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모습에서 흐릿하기는 했지만 동양 여인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서유럽 사람들에 비하여 덜 상업적이었고 주변의 다른 동유럽 국가의 여인들에 비하여 무뚝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유럽의 소도시 여행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만족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주변 국가들과 달리 우리에게 쉽게 선택되지 않았던 나라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이번에 찾은 폴란드의 소도시 브로츠와프는 기대 이상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도시였다. 물론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럽의 유명한 대도시에 비하면 규모면에서나 건물의 웅장함 등에 있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기는 했지만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과 함께 오래 기억될 여행이었다. OLP



혁명 토굴과 유배 저택

—
글.
김동원
OLP 16기
동아일보 기자



1

러시아 동쪽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이르쿠츠크. 지상 최대의 호수 바이칼을 보려면 들려야 할 관문이다. 이곳이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릴 정도로 문화 도시로 알려진 것은 이곳으로 유배 온 데카브리스트(12월 혁명 당원)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러시아어로 '데카브리'는 12월이라는 뜻이다. 12월에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들이 거사를 일으켰던 배경은 이랬다. 1812년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공격했다. 9월초 모스크바에 입성했지만, 곧이어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모스크바는 폐허로 변했다. 굶주린 프랑스군은 마침내 퇴각하기에 이른다. 러시아 정규군은 후퇴하는 프랑스군을 추격해 프랑스 파리까지 입성했다.

이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의 젊은 장교들은 서유럽의 자유주의 체제와 사회 분위기에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그들 조국 러시아의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황제가 철권통치하고 아직도 농노제가 존재하는 조국은 젊은 장교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거사를 논의하기에 이른다. 1825년 11월 알렉산드르 1세가 세상을 뜨자, 혼란을 틈 타 그들은 12월 마침내 농노제 폐지 등 근대적 혁명을 도모하게 된다. 원로원 광장에 3000 여명이 넘는 병사들과 장교들이 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도세력 중 일부가 배반한데다, 혁명 최고지도자(트루베츠크)마저 거사 현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기도했던 12월 혁명이 결국 실패로 끝난 것. 근대적 혁명이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절실함과 절박함은 상대적으로 모자라 치밀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지 못했던 게 실패 요인이었다. 새로 황제가 된 니콜라이 1세는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일부를 교수형에 처하고, 100명이 넘는 주도자들을 시베리아로 유배 보냈다. 12월 혁명의 주도 세력 중 한명인 '발콘스키'는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장군이었다. 그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와 먼 인척이었다. 톨스토이가 1812년의 프랑스-러시아전쟁과 데카브리스트들의 활동을 조사한 후 쓴 소설이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다. 이르쿠츠크 시내엔 발콘스키가 유배 중 생활했던 집이 남아 있다. 유배였다고는 해도, 그들이 살던 집은 웬만한 귀족의 집을 연상케 하는 저택의 위용과 호화로움이 그대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변혁을 꿈꾸던 혁명가의 삶의 모습과는 꽤 격차가 있다. 실패



러시아 12월 혁명당 주역이었던 발콘스키가 유배지에서 살았던 화려한 저택의 내부와 외부 모습.



한 혁명가들이 유배를 보낸 지역이 현재는 시베리아에서 문화가 꽃피는 지역이라는 점도 역사의 아이러니로 보인다. 데카브리스트들의 학문, 문화, 예술 활동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이르크츠크를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2

중국 산시(陝西)성의 연안(延安). 우리에게 그저 김일성에 의해 숙청된 ‘연안파’를 떠 올리게 만드는 지명이지만, 중국에서는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공산혁명의 성지라는 애기다.

하늘에서 바라본 연안의 첫 인상은 베일에 감춰둔 은둔의 이미지였다. 황토고원이라 부르는 험준한 지형이다. 오목하게 파고 들어간 지대에 역사를 품은 채 웃고름을 풀듯 살갗 모습을 드러냈다. 공산혁명 성지답게 붉은색 글씨의 선전 문구를 써놓은 대형 현수막이 눈길을 잡아챘다. 연안은 마오쩌둥(毛澤東)의 홍군이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군대의 추격을 피해 약 9600km 장정(長征) 끝에 도착한 혁명 발원지다. 장정이란 홍군이 1934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 남짓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수도였던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에서 산시(陝西)성 연안까지 행군해 이동한 것을 일컫는다. 장정의 최종 도착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연안 중심가의 이름도 다름 아닌 ‘성지(聖地)’였다. 중국인들이 이곳을 얼마나 신성시하는지 새삼 피부로 다가왔다. 마오가

10년 넘게 살았다는 토굴로 방향을 틀었다. 야트막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양자링 계곡이 눈앞에 펼쳐졌다. 10여 분 산길을 오르니 연안 시절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 류사오치(劉少奇) 등 지도부가 오랫동안 살면서 투쟁을 지휘하던 산속 토굴이 역사 속 스토리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혁명 성지’인 이 토굴은 넓이가 두세 평에 불과한 움막 수준이다. 서너 명이 들어가면 딱 찰 정도로 비좁았다. 현지에서는 산속 토굴을 야오동(窯洞)이라고 부른다. 땅을 파고 들어간 집이라는 뜻이다.

마오가 살았던 야오동을 찾았다. 붉은 깃발을 치켜든 단체 관람객 서너 팀이 몰려와 토굴 안팎은 인파로 붐볐다. 마오 토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한 오래된 침대와 작은 책상, 혁명 관련 서적이 꽂힌 책꽂이 하나가 전부였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일행에게 성지를 안내하던 30대 여성은 토굴 내 소박한 가재도구를 가리키며 “혁명지도부의 숭선수범은 당원은 물론, 인민의 마음까지 움직여 튼튼한 혁명의 기반을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는 신변보호를 위해 당시 연안에서도 몇 곳을 옮겨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된 토굴 앞에는 ‘1938년 11월부터 1943년 10월’까지 머물렀다고 표시돼 있다. 인근에 있는 류사오치 토굴도 마오 토굴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혁명을 함께 한 동지였지만 훗날 이들의 운명이 천양지차였음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1959년부터 10년간 광 국가주석을 지낸 류사오치는 마오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주자파



중국 혁명기념관 앞에 세워진 대형 마오쩌둥 동상.



중국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연안의 토굴.
마오쩌둥이 거주했던 토굴을 찾아가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다.

(走資派,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지칭)로 몰려 실각했다. 말년에는 반 감금 상태로 지내다 생을 마감했다.

성지를 찾아 허베이(河北)성에서 왔다는 한 공산당원은 “몇 년간 별려 혁명 성지를 찾아왔다”며 “혁명지도부가 살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니 눈물이 날 정도”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곳에서는 ‘연안정신(延安精神)’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나부꼈다. 혁명 당시 시대정신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연안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국민당 군부에 쫓겨 오기 전까지는 인구 수천여명 사는 조용한 산골마을이었다. 지금은 200만여 명이 거주하는 중견 도시로 탈바꿈했다.

이어서 찾은 연안혁명기념관. 중국 홍군 장정의 역사를 생생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연안시 서쪽에 자리 잡은 연안혁명기념관은 마오 동상을 전면에 두고 한일(一)자 형태로 건축했다. 이곳에는 마오가 베이징대 도서관 사서에서 중국 공산혁명 지도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선동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렬한 색채와 현장감을 고스란히 담아 전시해놓았다.

안내를 맡은 군복 차림의 20대 청년은 시종일관 날카로운 쇠소리와 중국 특유의 하이톤 발성으로 공산혁명 당시 상황을 무성영화 번사가 연출하듯 흥미롭게 설명했다.

당시 기록해놓은 공산당가(黨歌)의 빛바랜 음표가 한 전시실에 걸려 있었다.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청년은 망설임 없이 공산당가를 힘차게 불렀다.

같은 전시실에 있던 중국 젊은 관람객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해 이내 웅장한 합창이 울려 퍼졌다.

혁명 기념관 입구엔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류사오치 등 혁명 핵심 인물의 실제 모습을 방불케 하는 밀랍모형이 웅장하게 포진돼 있다. 글쓰기를 좋아했다는 마오가 연안 시절 쓴 저서도 원래 소책자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 중국 공산당 홍군이 썼던 붉은 깃발과 총칼, 창 같은 실제 유물도 6개 전시관에 넘쳐났다. 일제강점기 우리 젊은이가 활동했던 조선항일군정학교의 옛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다. 연안 시절에도 한국인 수십 명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한 명이 닐 웨일스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이다.

#3

인민의 마음을 샀던 마오쩌둥이 살았던 토굴. 근대혁명을 꿈꾸었지만 귀족(상류층)의 한계를 보여줬던 발콘스키의 저택. 필자의 머리에서 오랫동안 오버랩 되는 두 장면이다.

바야흐로 한국도 정치의 계절이다. 물론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처한 상황이나 정치적 배경이 사뭇 다르다. 이를 감안한다 해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자가 된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전 대선 후보의 마지막 발언이 남긴 후회 섞인 메시지를 함께 새겨 볼 시점이다. OLP



리더는 어떻게 성장 하는가? 리더들이 스스로 던져야 할 “5가지 질문”

_동화의 숲에서 길을 찾다.



리더인 당신은 소인배인가 위대한 사람인가?
당신의 리더는 소인배인가 위대한 사람인가?
그리고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소인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 역시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_마크 트웨인

출판기념회
2017년 3월 8일(수)
강남 교보타워 23층
오후 7시 30분



글. 문규선
OLP 13기
코스텔(주) 부사장

저자인 맨프레드 케치 드 브리스는 현재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INSEAD 교수로 리더십개발과 조직 변화 임상교수로 INSEAD글로벌 리더십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맨프레드 교수는 친절하게 당신을 동화의 세계로 데리고 가서 리더의 지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경고한다. 당신의 할머니가 눈 오는 겨울, 따뜻한 이랫목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동화를 읽으며 당신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듯 조곤 조곤 이야기 해준다.

리더십의 대가 워렌 버피스는 오늘날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3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핵무기 등의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전멸 위험, 두 번째는 전염병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 세 번째는 심각한 리더십 위기는 위험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리더십의 위기라고 했다. 우리의 현실은 이미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시간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책은 아래와 같은 리더십의 5가지 함정을 다루면서 그 숲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내한다.

- 1.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열망하는가?
- 2. 건강한 ‘자기애(自己愛)’ 를 가졌는가?
- 3. 사람들에게 최선을 끌어내는가?
- 4. 성공하는 팀은 무엇이 다른가?
- 5. 진정성 있고 생기 넘치는 조직인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한 현상을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심리학적 언어와 리더십 코칭으로, 지금의 리더와 잠재적인 리더에게 동화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만나고, 길을 찾으라고 한다.

번역을 주도한 김현정 교수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상담심리 석사,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직과 리더십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박사 논문은 맨프레드 교수의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연구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기관인 Institute of Coaching 으로부터 연구비를 전액 지원 받아 수행되었다. ‘성공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일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리더들을 교육, 상담, 코칭 하고 있으며, 현재 아주대 학교 협상코칭센터 센터장으로 경영대학원에서 코칭 MBA과정 비즈니스 코칭을 가르치고 있다.

공동 번역자인 OLP13기 문규선 소장(ECS 센터)은 관리회계를 전공하고 30여 년간 국내외 기업현장에서 CFO, COO, CEO로 책임을 수행했다. 전략과 조직관리에서의 성패가 리더십의 역동이라는 것을 통찰하고 그것에 대한 핵심을 찾던 중, 이 책에서 미림을 발견하고 번역에 참여 했다. 현재 (주)팀스퍼시스 그룹)의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수행 하면서, 리더십과 코칭 MBA 취득(2016년)후 융합컨설팅 글로벌경영 박사과정에서 ‘리더들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주)더블북코리아 2월 27일 출간>

기수별
활동 소식

Opinion Leaders Club News

- 2기** 2기 박대수 원우 : KT 전무(경제경영연구소)로 승진하셨습니다
- 3기** 3기 박성훈 원우 : 오에이치코리아 총괄이사로 영전하셨습니다.
3기 채희창 원우 : 세계일보 편집국 수석부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4기** 4기 문승동 원우 : 2016년 10월 9일(일)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5기** 5기 조남선 원우 : 2016년 4월 9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6기** 6기 정석구 원우 : 2016년 3월 19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6기 정석구 원우 : 2016년 7월 2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7기** 7기 김근수 원우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영전하셨습니다.
7기 이광준 원우 : 2016년 3월 19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8기** 8기 박승권 원우 : KB증권 분당PB센터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8기 장정욱 원우 : KTB투자증권 전무(커뮤니케이션실)로 영전하셨습니다.
- 9기** 9기 박관호 원우 : 2016년 11월 12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10기** 10기 박동석 원우 : 아시아 경제 TV 대표이사로 영전하셨습니다.
10기 장학만 원우 : 한국일보 편집국 산업부장(부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12기** 12기 옥영대 원우 :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14기** 14기 이덕수 OLC 부회장 : 2016년 12월 3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4기 허옥환 원우 : 광주은행 강남지점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 15기** 15기 김장하 원우 : YTN 편성제작국장으로 보임하셨습니다.
- 16기** 16기 안선종 원우 : 하나금융투자 전략기획팀 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 17기** 17기 손병관 원우 : 신한카드 브랜드 전략 본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 19기** 19기 양규석 원우 : 국민은행 포일IT밸리지점장으로 전보하셨습니다.
19기 이병식 원우 : YTN 보도국 뉴스지원팀장으로 보임하셨습니다.
19기 이현복 원우 : GS에너지 대외협력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클. 박설웅
OLP 20기 회장
(주)에스디생명공학 대표이사

OLP를 먼저 거쳐 간 친구가 '나이 들어서 OLP만한 과정이 없다. 학비가 부담되면 본인이 대주겠다.'며 적극 추천하였다. 친구 추천으로 교수님 전화를 받고 어떨결에 등록하였는데 회사 업무로 입학식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경황없이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면서 강의를 들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두꺼운 외투를 걸쳐 입고 수료식을 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30년도 더 지났는데 그 동안 잊고 있었던 경제원리의 베이스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격변하는 세계경제의 원리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우수 강의를 수상하신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의 강의로 인상 깊었다. 2001년도에는 시가총액 Top5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에 랭크되어 유일한 IT기업이었지만 2016년도에는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Top5기업 모두가 IT 및 Digital 기업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조윤제 교수님은 여러 가지 경제원리 중에서 72의 법칙을 경제성장률로 설명하여주신 부분은 새로웠다. 직장 다닐 때에는 금리수준으로 적용하여 예금이 2배가 되는데 몇 년이나 되는가로 접근을 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 시에는 예금금리가 10%대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7년이면 2배가 되었다. 현재의 2%라면 72 나누기 2를 하여 36년이 소요되어 평생 저축해야 2배가 된다는 것이다. 금리수준을 경제성장률로 바꾸면 나라 경제규모가 2배로 되는 데에는 요즘 같은 2% 성장이 지속된다면 1세대가 소요된다는 것이라 끔찍한 얘기이기도 하다.

정재식 부원장님과 이강오 주임교수님의 강의시간에 빠지지 않고 같이 수업을 들으며 동고동락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각 산업과 언론계의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들과 강의와 3교시를 같이하면서 쌓은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6개월이지만 4년 대학생활을 압축하여 체험한 것처럼 다이내믹했고 행복했던 것 같다. 허브 빌리지와 청주에서의 1박 2일 동안 밤새도록 발산한 원우 여러분들의 끼를 보았고, 홍대 근처 카페에서의 부부특강과 선배원우들의 밴드 공연, 일본 미야자키로의 2박3일 졸업여행 등으로 원우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 OLP 수료식은 마지막이 아니라 OLC의 또 다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산행과 골프 등 다양한 활동에 20기 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9기까지의 선배 분들과 교류를 함께 할 예정이다. 세상사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할 수 있다고 보면 할 수 있다. 우리 OLC 원우님들과 더욱 우정을 쌓는다면 우리 모두 건강한 친구가 되고 앞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 궁극의 삶의 목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제대학원 교학과 Opinion Leaders Progra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대학원 교학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pinion Leaders Program
전화 02-705-8017
<http://olp.sogang.ac.kr>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사무국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92 삼구빌딩
전화 02-828-3962
olc@sogang.ac.kr



클.
유재중
OLP 20기 간사장
(주)한국고용정보 경영본부 부사장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대사이다. 모든 날이 좋았던 것처럼 OLP 과정을 함께 한 원우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가 된 원우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날들이 참 좋았다.

OLP 과정을 접했던 지난 6개월간 나는 신선한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 언론사, 기업체, 홍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세상에는 배움을 멈추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원우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최고 권위의 명강사진의 강의는 잠자고 있던 열정을 일깨웠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큰 안목을 길러 주었다.

배움을 계속하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발전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일본 미야자키로의 졸업여행은 OLP 과정의 백미였다. 원우들의 힘과 에너지는 지칠 줄 몰랐고, 어느 새 학창시절 같은 무모한 용기를 추억에 더하며 우리의 졸업여행은 진한 ‘우정여행’이 되었다.

새롭게 시작될 OLC 활동을 포함하여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많은 날들을 원우들과 함께 하리라 생각하니 무척 설레고 기대 된다. OLP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작은 씨앗이 되어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으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
OLP 21기
입학안내



모집인원 50명 내외

지원자격

-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 공·사기업체의 임원, 간부
-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
-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인사
- 법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2017년 6월부터
- 장소: 경제대학원 교학과 Opinion Leaders Program (K관 111호)

제 21기 주요 학사일정 및 강의시간

- 입학식: 2017년 9월
- 강의기간: 2017년 9월~2018년 1월
-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하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두산빌컷 호더 100인대 판매)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ISO 14001



ISO 9001



아웃소싱서비스 종합대상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Samkoo

자리의 가치를 아는 기업

업무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기업

일이 아니라 가치있는 자리를 만드는 기업

- M.P(Manufacturing Production) : 생산, 제조, 유통, 공항 기내식, 조리보조, 사무 관리원, 판매, 단체급식, 구내 식당운영
- F.M(Facility Management) : 미화, 시설관리, 조경, 영선, 안내
- P.M(Property Management) : 임대차관리, 투자관리, 부동산 자산평가
- ACOS(Albatros of Countryclub One-stop Service) : Agency(마케팅), 클럽하우스 대식당, 골프장 시설관리(FM), 구내식당
- Security : 공항경비, 특수경비, 시설경비, 경비원 신입교육
- Global Business : 고배송(해외 직구 배송대행-미국 뉴저지, 델라웨어), 중국 법인 无锡三久电气安装有限公司(우시삼구전기인장유한공사)
- L.S(Logistics Service) : 공급망 관리, 물류센터, 창고관리
- Silver Care Service : 노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품 판매 및 대여
- GreenS Service : 공조기 필터 납품, 냉난방기 종합세척, 주방 후드/덕트 세척 등

Outsourcing Frontier

대표회사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92(신대방동) 삼구빌딩 · 대표전화 02.828.3939 · 전국공통 1588.2239

<http://www.samkoo.com>

#2 자산관리 이야기 - 행복편



41살 영업사원 태형씨,
월급쟁이의 자산관리를 시작했다.
행복이 부른다.

회의에, 야근에, 늘 바쁜 태형씨.
내년엔 학교에 가는 현민이와 석훈이를 보면 어깨가 무겁지만,
치밀한 분석과 관리로 믿음직한 엠플리오 자산관리가 있어 힘이 됩니다.
'20년 뒤 안정된 은퇴를 위해 자산관리는 쉴 수 없으니까요'

★ 자산이 작아도
자산관리를 몰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자산관리.
로보 어드바이저가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M Folio 자산관리를 만나세요!

M Folio (엠플리오) 자산관리란? 자산관리 전문가와 로보 알고리즘이 고객의 투자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자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객자산을 진단하고 리밸런싱 제안을 해주는 자산관리 솔루션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엠플리오 자산관리를 다운 받으세요

당사는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5499호 (2016.10.26 ~ 2017.09.30)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6-2-1209호 (2016.10.21 ~ 2017.09.30)